

청.장년 성경공부

출애굽 이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 공부

<인도자 지침서>

글쓴이 : 단 가너 (Don Garner)
윌리엄 (William C. Miller)
스테반 폰 (Stephen Von Wyrick)
비비안 코나드 (Vivian Conrad)
에밀리 (Emily Martin)
크레이그 웨스트 (Craig West)
브래드 윌리엄슨 (Brad Williamson)

Baptist Way Press®

달라스, 텍사스

출애굽 이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 공부

판권소유 © : 2011 BAPTISTWAY PRESS ®

모든 권리 소유.

교회사역을 위해 필요한 만큼 교회에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출판물의 복제판은 간략한 인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면을 통한 허용 없이 매매되거나 유통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BAPTISTWAY,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 333 North Washington, Dallas, TX 75246-17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APTISTWAY PRESS ® 는 미 특허. 상표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개역성경, 1961 에서 했습니다.

BAPTISTWAY PRESS® Management Team

Director, Education/Discipleship Center: Chris Liebrum

Director, Bible Study/Discipleship Team: Phil Miller

Publisher, BAPTISTWAY PRESS®: Ross West

한국어 집필위원

출애굽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공부 (1과 ~ 13과) 번역
새누리 교회

출애굽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공부 (14과 ~ 15과) 번역
김훈희 (하나님의 꿈의 교회)

한국어 집필 팀장

팻 에컨 (Pat Ekern), BGCT 교회건축센터,

초판 : 2011년 9월

출애굽 이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 공부: 인도자 지침서

BAPTISTWAY PRESS®
Dallas, Texas

♣ 이 교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는 교육 방법을 택하라.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섞어 사용해도 좋다. 각 방법은 실제로 도움을 주고, 가르칠 준비를 위해 곧바로 유용하도록 고안되었다.

각 장의 **학습계획** 주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쉽게 배울 수 있는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침의 순서를 도와주기 위함이다. 첫 번째 주제 **‘삶과의 연결’**은 수업을 시작하여 공부할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 줄 것이다. 두 번째 주제 **‘학습인도’**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세 번째 **‘적용격려’**는 참가자들이 공부한 말씀을 삶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도와 줄 것이다.

수업을 시작할 때, 각 과의 첫 페이지나 **‘수업계획’**이 있는 지면에 공부하게 될 날짜를 적는 훈련에 시간을 할애하라. 수업계획표를 만들어 게시하거나 E-Mail로 수업계획표를 보내어 언제 무슨 과를 공부하게 될 지를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각 과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와주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1. 정해진 그룹 성경공부 시간보다 일주일 전에 먼저 이 책을 공부한다.
2. **‘수업계획’** 내용을 훑어본다. 목차와를 훑어보고 공부하게 될 내용이 전체의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후 공부하게 될 내용의 머리말을 복습한다.
3. **‘주제’**와 **‘탐구질문’**과 **‘학습목표’**를 숙고하면 각 장마다의 중심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4. 당신의 성경책을 사용하여 각 장의 성경본문을 기도하며 숙고하라. 각자 본인의 성경책을 사용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성경공부에 더욱 집중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유도한다.

(각 과의 **‘학습계획’**과 **‘수업계획’**들은 저자마다 다른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어떤 번역본을 사용하든지 자유롭게 비교하면서 사용하라.)

5. 성경말씀을 먼저 읽은 후에 **‘수업계획’**에 나와 있는 **‘성경주해’**를 참조하라.

(각 장의 지은이들은 각 장의 내용에 가장 충실한 성경본문을 채택했다. 물론 당신이 가장 은혜 받은 성경본문을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4. 각 장에 주워진 성경말씀을 읽은 후에, 당신의 성경공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가의 본문 해석을 읽는다.
5. 각 장에 주워진 작은 기사 - “참고” - 를 읽는다. “참고”는 추가적이고 주석적인 내용과 성령의 영감으로 당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삶의 적용까지도 도와줄 것이다.
6. 각 장에 주워진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고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주어진 질문들은 당신에게 더 깊은 생각과 적용점을 제시할 것이며, 그룹 성경공부시간에도 사용될 것이다.

출애굽 이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 공부: 인도자 지침서

인도자 지침서 저자들

스테인 폰 퍽 : 1과에서 6과까지의 "성경주해"를 저술했다. 퍽 박사는 the University of Mary-Hardin Baylor, Belton, Texas 에서 히브리 성경과 고고학 교수로 일하고 있다. 또한 베일러 대학의 종교학 교수이다. 그는 BAPTISTWAY PRESS® 를 위해서 많은 저술을 했었다.

윌리엄 밀러 : Farmington, Missouri 에 있는 제일침례교회의 목사이다. 7과에서 10과까지 썼다. 그는 Southwest Baptist University 와 Midwestern Baptist Seminary 를 졸업했다. 밀러 박사는 현재 Missouri Baptist University 이사이고 과거에는 Southwest Baptist University 의 이사이었다. 30년 동안 그는 Farmington 에서 대학생 연령의 주일학교 그룹을 가르쳤고 미저리에 있는 이전의 두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로 섬겼었다.

단 가너 : 11과에서 15과까지의 "성경주해" 를 썼다. 가너 박사는 Jefferson City, Tennessee Carson-Newman College 에서 구약성경과 성서 고고학을 가르친다. 그는 다양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 임시 목사, 성경 교사, 그리고 수련회 강사로 일했다. 그의 저술 가운데는 Guideposts Magazine 에서 판매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주석서가 있다. 그는 이전에도 BAPTISTWAY® 를 위해서 책을 썼다.

브래드 윌리엄슨 : 1과에서 5과까지의 "교사를 위한 제안들" 을 썼다. 윌리엄슨 박사는 Pasadena, Texas 에 있는 South Main Baptist Church 의 교육 목사이고 Logsdon Theological Seminary 의 부교수로 있다.

에밀리 마틴 : 6과에서 10과까지의 "교사를 위한 제안들"을 썼다. 그녀는 경영과 그리스도인 분야의 전문 저술가이다. 에밀리는 BAPTISTWAY PRESS®를 위해서 수 많은 글을 썼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으며 Dallas, Texas 에 있는 Park Cities Baptist Church 의 교인이다.

크레이그 웨스트 : 11과에서 13과까지의 "교사를 위한 제안들"을 썼다. 그는 Charleston, Arkansas 에 있는 제일침례교회의 담임 목사이다. 그는 또한 텍사스에 있는 몇 개의 교회에서 음악 목사와 교육 목사로서 봉사했다. 그는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의 졸업생이다. 크레이그는 이전에도 BAPTISTWAY®에서 저술 작업을했다.

비비안 코나드 : 인도자 지침서의 "교사를 위한 제안들" 14과, 15과를 썼고 학습공과 14과 15과를 썼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최근에 14년 동안의 해외 선교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다. 마지막 11년 동안은 필리핀의 어린이 선교 국제 학교인 Faith Academy 에서 성경을 가르쳤다. 그녀는 Mineral Wells, Texas 의 주일학교 교사이자 제자훈련 지도자이다.

출애굽 이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 공부: 인도자 지침서

출애굽 이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 공부

인도자 지침서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

인도자 지침서의 작가들

| | 학습 일자 | |
|-----|-------|--|
| 1과 | _____ | 모세의 탄생시에 있던 여인들:6 아이들을 돕기 위해 행동을 취함 (출애굽기 1:15-2:10) |
| 2과 | _____ | 모세: 고통 받는 백성들을 위해 자비를 구함.....13 (출애굽기 32:7-14, 30-34) |
| 3과 | _____ | 갈렙: 용기 있는 믿음을 보여줌.....22 (민수기 13:25--14:10a) |
| 4과 | _____ | 슬로브핫 자매들.....28 (민수기 27:1-11) |
| 5과 | _____ | 여호수아: 하나님을 따르며 지도함.....34 (여호수아 24:1-3, 13-27) |
| 6과 | _____ | 드보라: 강력한 지도력 발휘하기.....40 (사사기 4:1-16; 5:1-7) |
| 7과 | _____ | 사무엘: 최고의 충성을 신실하게 보임.....48 (삼상 12:1-5, 13-25) |
| 8과 | _____ | 다윗과 나단: 죄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55 (삼하 11:2-15; 12:1-13a) |
| 9과 | _____ | 아모스: 용감하게 반대를 무릅쓰.....63 (아모스 1:1-2; 2:6-16; 7:10-17) |
| 10과 | _____ | 미가야: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71 (열왕기상 22:6-28) |

출애굽 이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 공부: 인도자 지침서

| | | |
|-----|-------|--|
| 11과 | _____ | 홀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한 사람.....78 (역대하 34: 19-31) |
| 12과 | _____ | 예레미야: 절망의 수렁에서 믿음을 지키다.....85 (예레미야 20:7-18; 26:1-15) |
| 13과 | _____ | 사드락, 메섹, 아벳느고:91 하나님께 무한한 충성을 보이다 (다니엘 3) |
| 14과 | _____ | 에스더: 최후의 모험97 (에스더 4장1절-16절) |
| 15과 | _____ | 느헤미야: 사람들을 위해 일어서다103 (느헤미야 2장1절-5절;5장:1절-13절) |

| | |
|--|--|
| <p>[제 1 과]</p> | <p>모세의 탄생시에 있던 여인들: 아이들을 돕기 위해 행동을 취함</p> |
| <p>핵심본문 출애굽기 1:15-2:10</p> <p>배경 출애굽기 1:1-2:10</p> | <p>학습주제 여인들은 바로의 사악한 계획을 무너뜨리고 특별한 아이를 포함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대범하고 용감하게 행동했다.</p> <p>탐구질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p> <p>학습목표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몇몇 여인들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취했던 행동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돕는 길이 무엇인지 파악한다.</p> |

성경주해

배경이해

창세기는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안전하게 정착하는 긍정적인 기술로 끝을 맺는다. 그 이야기는 야곱의 아들들이 서로 화해한 것을 내포하고 있다. 부수적으로 형제들이 야곱의 유골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때부터 유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으로 직접 이장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이집트에서 언젠가는 떠날 것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다 (창 50:24-26).

출애굽기의 시작하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기원전 18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히소스라고 알려진 셈족 계열의 이방인들이 남이집트를 침입했고 델타 지역을 장악했다. 이것이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들어갔던 시점일 가능성이 있다. 기원전 16세기 중반에 본토 이집트인들은 이민족들을 몰아냈다. 이집트에 남아있던 셈 백성은 이집트 본토 통치자들에 의해 노예가 되었다.

출애굽 이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 공부: 인도자 지침서

이스라엘 백성은 셈족이다. 그러므로, 이집트의 19번째 왕조는 (거의 기원전 14세기 말에 시작되었다) 아마도 출애굽기의 배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문 해석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압제를 당하다 (1:1-22)

1:1-7.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은 (창 12:2) 이집트를 나오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집트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종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지만 그들은 땅이 없는 백성이었다.

1:8-14. “이집트를 다스리는” 그리고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학자들은 종종 19번째 왕조의 바로 왕을 언급한다, 예를 들면 세티 1세, 람세스 2세, 혹은 메르넵타를 1:8절에서 언급된 바로로 본다. “바로” 라는 용어는 왕을 뜻하는 이집트어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바로를 태양신 '라(Ra)' 의 아들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신으로서 보았다.

이집트인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잔인한 노동으로 통제하고 심지어 집단학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줄이려고 했다.

1:15-22. 점차적으로 바로는 이스라엘의 통제할 수 없는 인구증가를 유아살해로 막아 보려고 했다.

1:15-16. 본문은 이집트에 있는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산파가 단지 두 명뿐이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산파들은 산모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왔다. 두 산파의 이름은 심브라와 브아였다. 심브라는 '공평한 자' 혹은 '아름다움' 이라는 뜻이다. 흥미롭게도 기원전 18세기 이집트의 노예 목록에 '스프라'라는 이름이 나온다.¹⁾ 부아는 히브리 이름으로는 알려진바가 없다. 어떤 주석가는 그 의미가 '화려함' 혹은 '화려한 자'라고 주장한다. 그 이름은 우라릭 언어 (히브리어와 가까운 언어) 이고 그 의미는 '소녀'이다.

1:16. 남자 아기는 죽이고 여자 아기는 살려두라는 명령은 결국 히브리 인구를 근절시키기 위한

1) James Phillip Hyatt, Exodus,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71), 60.

것이였다. 여아들은 결국에는 이집트 남자들의 노예 아내가 될 것이다.

1:17. 본문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다고 진술한다. '주님을 두려워 한다' 혹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은 종종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랑한다는 것과 관련된다. 본문에서 산파들은 이집트인들이 살아있는 신으로 여기는 바로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그 두 산파는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월하게 여겼다. 그러므로 두 산파는 목숨을 걸고 바로의 분명한 명령을 어겼다. 이것은 국가법을 어긴 것이다.

1:18. 바로는 자기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 추궁하기 위해서 두 산파를 소환했다. 어떤 종교에서든 신에 대한 불순종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 산파들은 국가법을 어기는 행동으로 위대한 용감성을 보여주었다.

1:19. 산파들은 바로에게 정직한 보고를 했는가?, 혹은 변명을 했는가? 본문을 볼 때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산파들의 반응은 이집트 여인들보다 우월한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 능력을 드러내준다. 첫째로,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달랐다." 둘째로, 히브리 여인들은 "견장"했다. 셋째로 히브리 여인들은 보통 산통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 빨리 아이를 낳았다. 이집트 여인들, 특히 왕궁에 있는 여인들과 히브리 여인들의 비교는 유머 넘치는 이야기다.

1:20-21. 성경 본문은 명령에 불복종했던 산파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의 알려지지 않은 행동과 대조되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아이들의 출생을 관련 짓는다 --- (1) 생육이 번성, (2) 백성이 "강성"해짐, (3) 산파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다.

1:22. 22절은 이집트에 있는 히브리인들의 집단학살을 위한 세 번째 계락을 포함한다 (1:11, 16, 22). 바로는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모든" 남자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갓난 아이를 죽이는 방법은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이였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하피(Hapy)'라고 부르는 신으로 여겼다. 이 명령에는 종교적인 톤이 깔려있는 듯 하다. 남아를 나일 강에 던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더욱 엄격하고 종교적인 행동이였다. 여아들은 살려두라는 명령은 이집트인들의 노예 아내로 삼을 계획이 내포되어 있는 듯 하다.

모세의 탄생 (2:1-4)

2:1. 오늘 본문은 모세의 부모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출애굽기 6:20장에 그들의 이름이 나온다. 아르람은 모세의 아버지였고, 요게벳은 어머니였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르람의 자매였다. 모세의 아버지는 레위 지파였다.

2:2-3. 바로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를 나일 강에 던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상자를 준비했다. 그녀는 누군가 아이의 생명을 구해줄 수 있다는

소망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상자'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이다 (창 6:14). 그것은 덮개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상자를 만들 때 사용된 재료는 고대 이집트의 나일강 주변에 흔했던 파피루스 줄기였다. 오늘날 나일강 주변에는 더 이상 파피루스를 찾아볼 수 없다.

그녀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다는 것은 나일 신 '하피'에게 아이를 바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2:4. 모세의 미명의 누이는 이전 구절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등장한다. 출애굽기 15:20절은 모세의 누이 이름이 미리암이라는 것을 제공해준다. 나일 강을 따라갔던 이 누이가 바로 그 누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동정심 많은 이집트인 (2:5-10)

2:5a. 모세의 누이와 같이 바로의 딸 이름은 이야기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 후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따르면 여러 이름이 등장한다: 데르무티스, 다르무스, 메리스, 그리고 티티아. 이 이름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이집트 여인은 발견할 수 없다.

2:5b-6. 공주는 홀로 강가에 가지 않고 일행을 이끌고 갔다. 강가에서 상자를 목격한 그녀는 하인에게 그 이상한 상자를 가지고 오라고 시켰다.

6절에서 행동이 신속하게 움직인다: 그녀는 "열었다," "보았다," "불쌍히 여겼다." 아기에 대한 그녀의 동정은 그의 생명을 연장시켰다. 그녀는 그 아이가 히브리인이라는 것과 바로가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한 여인이 '라'의 아들 바로의 신적인 명령을 여겼다.

그녀는 그 아이의 울음 소리를 듣고 강물에 있는 상자에 관심을 가졌을까? 아니면 그 울음 소리는 그 상자를 건져 낸 뒤에 들렸을까?

2:7-8. 모세의 누이는 용감하게 그 공주에게 다가가서 제안을 했다.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은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근처에 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대범하고 용감한 것이었다.

모세의 누이는 우는 아기를 위해 유모를 찾아보겠다고 제안했고, 당연히 그녀는 누구를 어디에서 그러한 여인을 찾아올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바로 딸의 허락하에 모세의 누이는 그 아이의 생모를 데리고 왔다.

모세의 엄마가 상자 안에 있는 아이를 이집트 사람이 발견하는 것을 계획 속에 넣었을까?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모세의 누이는 아기 동생을 따라가서 주시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까? 아니면 그녀 스스로 아기 동생을 지켜보았을까?

2:9. 바로의 딸은 요게벳을 유모로 고용했다. 샅을 주었다는 것은 '고용하다', '급료를 주다'는 뜻이다. 여기서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기르는 댓가로 샅을 받았음은 주목할 만하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노역에 시달린 나머지 자녀를 양육할시간조차 얻기 힘들었다. 그럼에도 요게벳은 어엿이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모세를 기를 수 있게 되었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두드러진다.

2:10. 아이가 젖을 떼후 처음 계약에 따라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를 바로의 공주에게 돌려 보냈다. 고대 근동 전통에 의하면 아이를 발견한 사람은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단지 그 아이를 아들처럼 여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공식적인 양자로 삼았다. 사도행전 7:22절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라고 진술한다.

모세의 어머니가 아닌 바로의 딸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알다시피 모세의 이름의 뜻은 이 이야기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히브리 단어 모세는 '건져낸 자'라는 뜻이다. 바로의 딸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고 그 이름이 히브리어라면, 그 이름이 이집트인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대부분의 근대 학자들은 그 이름을 '태어나다'라는 뜻을 지닌 이집트어로 본다. 새로운 왕조의 어떤 바로들은 신들의 이름 중의 하나인 모세라는 이름을 부분적으로 사용했다. 더트 모세 (Thur-mose)는 '더트가 태어나다,' 혹은 '더트 신의 탄생'이라는 신을 의미한다. 그외 아모세, 프타모세, 아멘모세 등이 있다.

교시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1. 반원 모두에게 노트카드와 펜을 나누어 주라. 각자가 그들의 유년시절에 영향을 미쳤던 기억할만한 여인들의 이름을 적게하라 (그들의 어머니, 할머니, 선생님 등). 2, 3분 정도 시간을 주라. 그들이 적은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라. 그 여인들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할 수 있도록 하라. 5분 정도 시간을 주라.

2. 다음과 같이 진술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시기를 원한다. 이번 수업 속에서 우리는 구약의 다양한 인물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학습공과에 나오는 "도입" 부분을 사용해서 수업을 소개하라.

3. 다음과 같이 계속 말하라; 우리가 이번 성경 인물들을 배울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관찰하고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여인들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사용하셨던 몇 명의 여인들을 공부하게 될 것이다.

학습인도

4. 다음을 칠판에 미리 써놓고 각 과의 줄거리를 참조하라.

- I. 죽이라는 명령 (출 1:15-22)
- II. 구원의 계획 (출 2:1-4)
- III. 양육되는 아이 (출 2:5-10)

5. 당신의 가족 가운데 독특한 출생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을 반원들과 간단하게 나누라. 그러고 나서 학습공과와 이 인도자 지침서에 있는 "성경 주해" 내용을 참조해서 모세가 태어날 때의 상황을 설명하라. 출애굽기 1:15-16절을 읽어라. 다음과 같이 진술하라; 당시의 다른 모든 여인들처럼 모세의 어머니도 그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서 마음이 찢어졌을 것이다. 질문하라: 오늘날 당신이 그러한 명령이나 법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할 것 같은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

6. 출 1:17-21절을 읽어라. 학습공과 질문 1번을 하라.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 그다음에, 반원 중 한 사람이 22절을 읽게하라. 다음과 같이 진술하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새 생명은 기쁨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세가 태어날 당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

7. 학습 줄거리 "구원의 계획" 을 참조하라. 출 2:1-4절을 읽어라. 다음과 같이 진술하라: 다른 산파들처럼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불순종"을 사용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할 때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모세와 그의 가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2:5-10절을 읽고 "양육되는 아이"를 참조하라. 학습공과와 이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주해" 부분을 활용해서 이 구절을 설명하라.

적용격려

8. 반원들이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다섯 명의 성경 인물들이 무엇을 했었는지를 조용히 생각하도록 하라. 질문하라: 당신의 견해로 볼 때,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가장 최고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몇 분 정도의 시간을 주라.)

9. 오늘날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기 위해 개인과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라.)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개인으로써?" "소그룹으로서?"
"교회로써?" 질문을 각각 하도록 하라. 다음과 같이 진술하라; 당신이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결코 낭비하는 일일 수 없다.

| | |
|---|---|
| [제 2 과] | 모세: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자비를 구함 |
|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출애굽기 32:7-14, 30-34</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출애굽기 32</p> | <p>학습주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만한 가치가 없었지만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했다.</p> <p>탐구질문 자비를 받을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p> <p>학습목표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탄원을 분석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취해야 할 행동들을 생각한다.</p> |

성경주해

배경이해

황금 소에 대한 이야기는 언약을 맺는 것으로부터 (출 19--31) 그 계약을 갱신하는 것 (출 34)으로의 전환을 형성한다. 황금 소를 만든 것은 두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었다 (20:4-6). 이 반역은 모세로 하여금 두 개의 돌판을 깨도록 만들었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그 계약을 깨뜨렸음을 상징한다. 하지만 모세는 그 백성을 위해 중재에 나서기로 선택한다, 비록 그들이 징계를 받아 마땅하지만 말이다. 그의 중보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건질 새로운 기회를 주게 된다.

출애굽기 32장의 소에 대한 주제는 여로보암 1세의 통치와 다소 관련된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후에 단과 베델에 소를 숭배하는 종교를 세운다 (왕상 12:28-33을 보라). 아론과 여로보암 모두 제단을 만들고 축제를 벌였다. 성서 기자들은 이 두가지 행위 모두를 저주했다. 하지만 출애굽기 32:21-24절은 아론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한다. 8세기의 예언자 호세아는 단과 베델에 있는 제단을 그 소들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배신한 행위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보았다. 출애굽기 32:25-29절은 레위인들이 황금소의 사건에 연루되지 않고 주님께 신실함을 지켰음을

출애굽 이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 공부: 인도자 지침서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본 장의 가장 중요한 인상은 모세의 귀족적인 성품이다.

본문 해석

황금 소 (32:1-6)

32:1. 모세는 40 주야를 산에 남아있었다. 이는 모세의 늦은 귀환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안을 일으켰던 것으로 간파된다 --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들은 모세의 형제인 아론에게 다가와서 그가 그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라고 제안했다. 백성들 가운데 있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인도할 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음은 흥미롭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신이나 만들면 되는 것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

32:2-3. 금고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로부터 받아낸 것들이다 (3:21;12:36). 당시 하나님께서 이 같은 패물을(애굽 사람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성막과 그 기구를 만드는 데 쓰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오히려 이를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다. 한편 오늘날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 복을 이처럼 영똥한 데 오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아마 아론은 신을 만들어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1절)를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못하고, 대신 그들에게 귀중품을 가져오도록 요구함으로써 패물에 대한 그들의 애착심을 자극, 스스로가 우상 만드는 것을 단념토록 꾀하였을 것이다 (Augustine). 모든 인간 특히 여자들은 금, 은, 보석과 각종 장신구에 대한 애착이 강하니 이러한 아론의 계책은 상당히 그럴듯하게 보였다. 그러나 아론의 이러한 알팍한 계략은 백성들의 의외의 행동에 의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

32:4. "송아지" 라는 단어는 때로 3년된 어린 황소를 일컫는다. 시편 106:20은 아론의 송아지를 "황소"로 기록한다. 고대 근동지역의 사람들은 젊은 황소를 생식력과 강인함과 연결시켰다.

그 송아지는 많은 백성이 보고 경배할 수 있을 정도로 컸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아마도 그 송아지는 합성물로 된 것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나무, 혹은 돌, 혹은 구리로 모형을 만든 뒤 황금으로 도금을 했을 것이다. 시리아와 팔레스틴의 고대 유적지에서는 금이나 은으로 씩워진 구리 재료의 작은 입상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32:4b-5. 이 금송아지 우상은 그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나타난다 (왕상 12:28; 대하 13:8; 호 10:5) 아물든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송아지로 형상 화한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송아지의 차원으로 격하시켰음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어떠한형상이든 만들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20:4),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그 형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누를 범하기 때문이다.

고대 이방 종교의 축제는 음주, 가무(歌舞) 및 부도덕한 성행위로 이루어졌는데, 애굽 생활에서

출애굽 이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 공부: 인도자 지침서

이런것들을 익히 보았던 백성들은 여호와와의 절일 이라는 말을 이와 관련하여 이해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32:6.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짓기에 시간을 낭비할 틈이 없었다 ---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났다." 그들의 예배가 번제물과 화목제와 함께 드러졌다는 것은 흥미롭다.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드러지는 제물들이었다.

한편 여기서 '뛰놀았다'고 하는 히브리어 '차하크'는 (흥겹게 떠들며) '놀다'는 뜻인데 이는 곧 육체적 환락을 가리키는 말이다. 특히 당시 이방 종교에서황소신은 '힘'과 '생산'의 상징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 형상 앞에서 '뛰노는' 것은 곧 성적으로 타락한 행동을 의미한다.

모세의 첫번째 중보기도 (32:7-14)

이 부분은 신명기 9:12-19, 25-29절과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

32:7a. 주님께서서는 모세의 백성을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고 묘사하셨다. 대조적으로 모세는 그 백성을 여호와와의 백성이라고 묘사했다 (32:11)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내려가라"는 명령은 산 밑으로 내려가라는 긴박성을 나타낸다.

37b. 7-9절은 백성들에 대한 구체적인 죄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부패" 했다는 단어는 빼돌어지고 망쳐진 행동을 나타낸다.

32:8a. 백성은 금방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다. 그들의 반역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도 빨리 일어났다.

32:8b. 다시 한번, 그 위반은 여호와에 대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었다. 송아지는 단지 신을 위해 만든 발등상도 아니었고, 송아지 위에 신을 올려놓은 것도 아니었다. 이 구절은 그 송아지가 신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내포한다.

32:8c-9. 백성들은 그 송아지에게 절했다. 그것은 송아지로 나타낸 신에게 절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예배는 아론이 6절에서 묘사한대로 제물도 바치는 것이었다. 8절은 그 송아지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낸 신으로 동일시 된다. 성경 기자들은 항상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세속 문화와 혼합하는 것을 저주했다. 분명하게 백성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이교도들의 예배와 혼합했다.

32:11a-13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 모세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면서, 대신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린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소돔의 멸망 직전에 그들을 위해 중보 역할을 한 것과 유사하다(창18:20-33). 한편 모세의 호소 속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담겨있다. 즉 (1)이스라엘을 구원해 놓고 다시 멸망시킬 수는 없다. (2) 이방인(특히 이집트인)에게 놀림감이 된다(12절). (3)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셔야 한다(13절) 등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 오신 바 당신의 후회 없으신 사역에, 두 번째는 그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할 당신의 영광스러운 성호에, 세 번째는 무조건으로 베푸시는 당신의 은혜로우신 성품에 각각 호소한 것이다.

32:14. 주님은 모세의 중재에 응답하셨다. 그 중보기도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마음, 혹은 목적을 바꾸는데 영향을 미쳤다. 구약성경은 때때로 주님을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신 것을 후회하시기도 하시는 분으로 묘사한다. 예레미야 18:5-11절은 사람들의 행동이 악한 것에 근거한 것인지, 혹은 선한 것에 근거한 것인지에 따라 그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바꾸시는 분으로 표현한다.

성경의 말씀들은 다음과 같은 한 두개의 요소들에 근거해서 주님께서 후회하시는 분으로 제시한다. 첫째로, 중보기도가 드렸었을 때. 둘째, 사람들이 요나서와 같이 회개할 때. 하지만 출 32:14절은 주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기 전에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세째로, 여호와와의 후회하심은 주님의 긍휼하심이 많은 본성 때문이다. 역시 출 32:14절에서는 주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게 한 것은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였다.

고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아무런 감정도 없고 정적인 분으로 보지 않았다. 그대신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인간과 활발하게 관계하시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인격으로 보았다. 주님은 사람들의 필요, 태도, 그리고 행동에 반응하신다.

십계명 돌판이 깨어짐 (32:15-20)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산중턱까지 올라갔던 일행 중(24:1) 모세가 산으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를 수행했으며(24:13) 다른 사람들이 모두 산 밑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모세가 돌아오기 까지 산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자이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진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모세가 산 정상에서 이미 이스라엘 진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었음(7절)을 감안할 때 지도자로서 두 사람의 역량이 비교된다<17:9>.

싸우는 소리(* ,콜 밀레하마) - '전쟁(밀레하마)의 소리(콜)' 라는 의미이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 진에 내려가지 않고 산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떠드는 소리를 듣고 전쟁이 난 줄로 생각했다. 즉 다른 부족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았던 것이다.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보다 - 산 밑에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떠들썩하고 크게 외치는 소리에 여호수아는 혹시 지도자가 없는 사이 이민족이 침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백성들의 상황을 전해들은 모세는 그 소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가무(哥舞)소리인줄 금방 알았다.

출애굽 이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 공부: 인도자 지침서

모세는 직접 자신의 눈으로 야영지에서 일어난 일을 보았을 때 그의 분노는 "대노"했다. 모세는 단지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노했다! 그는 행동에 착수했다.

첫째로, 그는 두 개의 돌판을 깨뜨렸다. 모세가 이유 없이 격발된 분개로 그의 손에 있던 돌판을 던진 것은 아닌 것 같다. 돌판을 깬 것은 이스라엘이 주님과 그의 신뢰를 깨뜨렸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둘째로, 모세는 송아지를 박살냈다. 그는 불속에 그것을 태워서 완전히 재로 만들어 버렸다. 그는 미세한 그 분말을 사람들이 먹는 물에 넣어서 먹게했다. 오염된 물을 강제로 먹게 한 일은 민수기 5장에서 묘사된 "질투의 심판"과 비슷하다. 추측컨데, 죄가 있는 자는 그 섞은 물을 먹는 것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아론을 대면함 (32:21-24)

백성들을 대면한 후 모세는 아론을 불렀다. 모세는 아론에게 그의 행동을 설명할 기회를 준 것처럼 보인다 -- "이 백성이 네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하지만 아론의 대답에서 우스꽝스러운 그의 변명을 듣게 된다.

본문에서 아론은 모세에게 쏟아놓은 여호와와 그의 분노는 상관없이 오직 모세의 분노에만 걱정을 드러낸다. "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가리키는 말이다. 아론은 "백성의 악함"을 탓할 기회를 얻었다.

아론이 표현한 백성들의 걱정들은 흥미롭다. 하나, 그들은 그들을 인도할 신을 원했다. 둘,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해 낸 여호와와 사람 모세가 거기에 없었다. 그들의 신적 인도자요 지도자인 여호와를 인식함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론은 자기는 단지 사람들이 그에게 가지고 왔던 금을 "불에 던졌"던 잘못밖에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배교에 대한 자신의 무죄를 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놀랍고, 놀랍게도 "송아지가 나왔다!" 마치 아론은 그 송아지를 만든 일과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말했다.

성경기자는 아론의 나약함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강인함을 비교한다. 뿐만 아니라, 아론의 행동은 단과 베델에 송아지들을 만들어서 세웠던 여로보암 1세의 나약함과 평행을 이룬다.

레위 지파를 따로 세우다 (32:25-29)

누구든지 여호와와 그의 편에 있는 자 - 직역하면 '여호와를 위하는 자는 누구냐?' 혹은 '누가 여호와를 위하는가?'라는 말이다. 즉 모세는 일방적으로 여호와를 위하는 자는 나오라'고 하지 않고, 누가 그런 사람인가를 물어서 확인한 다음 자신에게 나오라고 하였다. 이는 곧 백성들에게 선택과 결단을 함께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은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이기도 했다.

‘도륙하라’는 일반적 의미의 살해보다는 한층 가혹한 ‘살육하다’란 의미이다. 따라서 모세의 명령은 인정 사정없이 죽이라는 것이었다. 레위인들이 범죄한 자들을 죽인 것은 그들을 희생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간주되었으니, 결과적으로 레위인들은 제사장으로 위임받은(손을 채운)셈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레위지파에게 복을 내리셨다. 이 복은 곧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축복을 의미한다(민1:47-54).

모세의 두번째 중보기도 (32:30-34)

30-34절에 있는 이야기는 두번째 중보기도인 듯 하다. 이 부분은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즉시로 징계하시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어느정도 해준다.

32:30 백성들의 죄악된 행동들을 처리한 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기도 했다. 그는 "여호와께로 올라"간다고 말했다. 백성들은 주님께서 호렙산이라고도 불리는 시내산 정상에 거하신다고 믿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속하실 것이라고 보장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에 그는 "혹 ~ 할까"라고 말했다. 그 용어는 확신이 아닌 소망의 단어이다. "속하다"는 히브리어로 '키퍼'이다. 이는 다양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진정시키다, 덮다, 달래다 등이다.

32:31-32. 모세는 산 정상에 여호와께서 계신 곳으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가 먼저 발을 내밀었다.

모세는 강한 어조로, 그리고 슬픔과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섞인 복합적인 감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했다.

모세는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지목했다. "이 백성"은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이다. 히브리어 본문을 읽으면 죄에 대한 모세의 참조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더욱 뚜렷이 알 수 있다. 먼저, 어순이 "이 백성" 이 나오기 전에 "범죄했다"는 말이 먼저 나온다. 둘째로, 그들의 죄는 단지 "죄"가 아니라 "큰 죄"로 묘사되어 있다.

모세는 또한 구체적인 죄를 지목했다 --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은 "큰 죄"이다. 그 죄는 일반적인 용어로 제시되지 않는다. 용서는 구체적인 범죄의 자각이 요구된다.

32:32. 합의하시면...사하시옵소서 - 여기서 '합의하시면'이란 말이 원문상에는 뚜렷하게 나타나있지 않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원하시면 용서하십시오' 혹은 '가능하면 용서하십시오'로 되어

있다(If you will, forgive). 따라서 '용서하실 수 있거든...용서하소서' 혹은 가능하면...용서하소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 이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 곧 (1) 하나님께서는 능히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권능자이시다 (2) 그러나 죄를 사해 주고 안 사해 주고는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뜻에 달려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사 1:18,19), 우리는 이 약속에 의지하여 그분께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32:33-34. 주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모세의 간구를 들으셨고 응답하셨다. 모세의 중보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말씀하셨다. 여호와와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긴 죄는 주님의 책에서 지워져 버리는 것을 요구한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선포했다,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렘 31:30). 마찬가지로, 에스겔은 선포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겔 18:20).

여호와와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후 구체적인 명령들을 주시고 모세를 내려보내셨다. 첫째로, 주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다: "가라" 그리고 "인도하라." 모세는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둘째로, 주님은 "나의 천사" 혹은 "나의 사자"가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할 때 모세 앞서서 갈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셋째로, 주님께서 여호와와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한 계명을 어긴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그 징계를 늦추실 것이다. 그 세대는 광야에서 주님의 징계를 경험했다; 하지만 단과 베텔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이스라엘의 북왕국은 기원전 721년에 앗시리아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질문하라: 가장 오랜 시간동안 여행을 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는 것은 어떤 느낌이었는가? 다음과 같이 말하라: 당신의 여행이 머나 먼 광야를 걷는 것이라고 상상해보라. 그 여행이 얼마나 지속되기를 원하는가? (반원들의 대답을 들어라.)

2. 다음과같이 진술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도 그들의 여행이 끝나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이다. 우리는 모세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게 된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후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었다. 학습공과에 있는 "구약 인물 차트"를 참조해서 어느

출애굽 이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 공부: 인도자 지침서

부분을 하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라.

학습인도

3. 학습공과에 있는 제목들을 칠판이나 포스트 종이에 전시하라.

- I. 모세가 없을 때의 백성들 (32:1-6)
- II.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세 (32:7-14)
- III. 백성들과 함께 있는 모세 (32:15-30)
- IV. 하나님 앞에 선 모세 (32:31-34)

4. 1과를 요약하라: 이제 줄거리 I 을 가리키라. 말하라: 이제 모세는 장성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생활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그들은 시내산에 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심했고 분명히 그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출애굽기 32:1절을 읽어라. 반원들이 1번에서 말했던 여행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라. 다음과 같이 말하라: 당신이 지도도 없이 도보로 사막을 가로지른다고 상상해보라. 그리고 이제 당신의 인도자는 사라져 버렸다. 당신은 어떻게 느끼겠는가? (반원들의 대답을 들어라.) 다음과 같이 말하라: 우리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것을 상상만 할 수 있다; 하지만 2-6절은 우리에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보여준다. 반원들 중 한 명이 32:2-6절을 읽게하고 다른 또 한 명은 20:3-4절을 읽게하라. 질문하라: 왜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행동했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향연을 향하여 어떻게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들의 행동은 오늘날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가?

5. 다음과 같이 말하라: 출애굽기 32:7-10절은 하나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다. 제목 II 를 가리키라. 관련 구절을 읽어라. "목이 곧은 백성"을 설명하라. 질문하라: 하나님의 반응이 당신을 놀라게 하는가? 왜 그런가? 모세가 어떻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했는가? (각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

6. 32:11-14절을 읽어라. 질문하라: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하는가? (대답을 들어라.)

7. III 을 가리키라. 32:15-29절을 요약하고 학습공과의 내용과 이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 주해" 부분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주석하라. 다음과 같이 말하라: 비록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섰지만, 결국 나중에 돌아와서 매우 대노했고 그 돌판을 깨뜨렸다.

출애굽 이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 공부: 인도자 지침서

8. 출애굽기 32:30-34절을 읽고 IV 를 가리키라. 질문하라: 왜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기꺼이 중재하려고 했는가?

적용격려

9. 다음과 같이 말하라: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당신에게 무엇을 제시하는가? 학습공과에 있는 참고글 "모세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부분을 참조하라. 질문하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했던 일들은 무엇인가?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

10. 말하라: 여러 면에 있어서 인생은 여행이다. 때로 우리는 전혀 가보지 못한 광야를 방황 하거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방황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 우리의 여행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기꺼이 돕는 경건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다.

1.

| | |
|---|---|
| [제 3 과] | 갈렙: 용기있는 믿음을 보여줌 |
|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민수기 13:25--14:10a</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민수기 13--14; 여호수 아 14:1-15</p> | <p>학습주제 갈렙은 비록 대다수의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의 길 위에 굳건하게 서 있었다.</p> <p>탐구질문 하나님께서는 용기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갈렙에 대하여 당신이 어떤 반응을 하도록 부르시는가?</p> <p>학습목표 어떻게 용기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것인지 갈렙의 행동들로부터 파악한다.</p> |

성경주해

배경이해

이스라엘이 광야를 유랑하던 시절의 12 정탐꾼 이야기는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중요성을 논증한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열두 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씩을 대표자로 선택했다. 그 열두명은 가나안의 남부쪽으로 들어가서 땅을 관찰하였다. 명백히 그들은 모두 같은 땅을 보았다. 하지만, 성경 본문은 그들이 실제로 보았던 것에 관해 다른 견해들을 보여준다.

대다수는 회의적인 설명을 제시했다. 그들은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에 반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민수기 13:27; 14:8).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묘사를 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중 리더는 갈렙이었다고 성경은 제시한다. 갈렙은 사람들의 차별하지 못함을 조용하게 만들고자 애썼다.

땅을 정탐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 전체를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려고 하셨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열명의 정탐꾼들은 상대할 어려움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의 실패는 믿음의 부족 자체를 여실 없이 보여준다. 믿음은 무시하는 것도, 낙관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갈렙조차도 그 땅에서의 도전적인 것들을 보았다. 다른 열명의 정탐꾼과 달리 갈렙은 이스라엘이 그러한 장벽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러한 환경들을 보았던 것이다.

본문 해석

정탐꾼들의 귀환 (13:25-26a)

"40일"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완전한 기간을 나타낸다. 정탐꾼들은 그 땅을 돌아볼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 그러므로 누구도 나쁜 보고가 그 땅을 돌아볼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없었다.

정탐꾼들의 보고 (13:26b-33)

13:26b. "가데스 (Kadesh)"는 '거룩하다'는 의미이며 브엘세바 남쪽에서 약 50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 그것은 므리바 가데스 (민 27:14)라고도 불리며 가데스 바네아 (32:8)라고도 불린다.

13:27. 그 땅은 좋았다. "젓과 꿀"의 땅으로 표현한 것은 가나안 땅의 비옥함에 대한 평범한 표현이었다. 가나안 땅은 이집트와 사막과 달리 충분한 비가 내렸다. 정탐꾼들은 그들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 과일을 내어놓았다 -- 포도송이, 석류, 그리고 무화과 (13:23).

13:28a. 부정적인 보고는 바로 이어졌다. 정탐꾼들은 그땅의 거주민들을 "강한" 백성으로 제시했다. 많은 도시가 견고한 성들로 요새화 되어 있었다. 이집트 땅은 그런 성들이 거의 없었다. 이집트인들은 중요한 무역로를 따라서 그런 성들을 전략적으로 만들어 놓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집트 도시들은 그렇게 요새화된 곳이 없었다. 게다가, 광야는 요새화된 마을들이 많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탐꾼들이 철옹성 같이 요새화된 도시들을 보았을 때 두려웠을 것이다.

13:28b-29. 그 땅은 많은 적들로 가득차 있었다, 하지만 그 땅을 통치하는 나라나 백성이 없었다. 아말렉족들은 가나안 남부에 있는 사막 가장자리를 따라 살고 있었던 유목 백성이었다. 성경 구절들은 그들을 전 역사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적들로 그린다. 헷족속은 본토가 소아시아였다. 그들의 세력이 정점에 올랐던 때는 대략 기원전 1400-1200년이다. 여부스족은 여부스 (후에 예루살렘으로 개명됨) 도시에 살았다. 아모리족 (이 구절에서 가나안인들과 구분된) 가나안의 중부 고지대에 살았다.

13:30. 갈렙은 정탐꾼들의 겁먹은 보고와 그에 동요하는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환기 시키며 믿음을 재무장시킬 의향이였다. 이처럼 그가 백성 앞에 나서서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근거는 인간적인 회유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 때문이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 갈렙의 이 말은 결코 만용(蠻勇)에서 우러나온 말이 아니라, 여호와와의 약속을 굳게 믿는 신앙에 기초한 말이다.

13:31. 다수의 정탐꾼들이 두번째로 이야기 했고, 갈렙의 의견에 완전히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노예의 신분을 막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막강한 군사력과 방어벽을 구축하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상대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수행해야 할 전쟁은 단순히 무기와 병력에만 의존하는 일상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거룩할 목적을 지닌 영적인 전쟁이었다. 더욱이 그들에게는 군대의 대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주저하거나 낙담해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확신하지 못했던(삼상 17:47)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미약함과 상대의 강함만 보일 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13:32. 가나안 땅에 대한 그들의 "악평"은 하나님의 구원의 질을 추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표현은 이상하다.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한다: 불모지, 가나안쪽 가운데 있었던 식인습관, 전쟁같은 불화, 혹은 전쟁을 일으키는 땅.

13:33. "네페림"은 고대시대에 반신반인의 존재로 믿어졌다. 네페림과 비교할 때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다 (14:1-2a)

14:1. 열명의 정탐꾼이 내놓은 보고에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고 아무도 갈렙의 낙관적인 견해를 듣지 않았다. 통곡의 밤이었다.

14:2a. 백성들은 그들의 두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 대적해서 "불평했다. "불평했다"는 술렁거리고 투덜대는 것을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돌아가기를 원하다 (14:2a-4)

14:2b. 백성의 실망은 매우 커서 이집트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현재의 상황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의 진술은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만일 그들이 살기보다 죽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고 그 적들이 자기들을 죽게하면 되는 것이다. 실망한 사람들은 종종 현실감을 잃는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속히 떠날 수 없었고, 지금은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사람들은 너무도 속히 주님께서

주신 승리들을 잇는다.

14:3. 먼저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비난했다. 이제 그들은 주님을 비난하고 있었다. 여호와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 입구까지 그들을 인도했던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수 세대 동안의 히브리 노예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에 불평을 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 원하신다고 비난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기를 원했다면 주님은 이집트에 그냥 남겨둬서 바로가 셈족의 노예들을 진멸시키도록 했으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그 추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오셔서 죽이실 필요가 없었다.

14:4.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거부한 군중은 그들이 직접 지도자를 뽑고 이집트로 돌아갈 준비를 하려고 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집이 아닌 이집트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의 반응 (14:5-6)

14:5.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 "엎드렸다." 이것은 두 지도자들의 중재의 행동이다. 부복하는 자세는 더 높은 분이신 주님 앞에서 한 것이지 회중들에게 한 것이 아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달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회중에 대한 주님의 분노를 바꾸기 위해 여호와 앞에 엎드린 것이다. 그들의 행동은 즉각적인 분노를 저지했고, 이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견해를 피력할 기회를 주었다.

14:6.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들의 반응에 슬픔의 표시로 그들의 옷을 찢었다. 그들은 비관적인 보고를 가지고 돌아온 열두명의 정탐꾼들과 똑 같은 땅을 보았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능성을 보았다.

백성들을 독려하려는 갈렙의 노력 (14:7-9)

14:7-8. 갈렙과 여호수아는 회중을 격려하려고 했다. 가나안 땅 입국은 오직 '여호와와 기쁘신 뜻', 곧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에 기인한 것임을 밝혔다. 따라서 가나안 땅 입국은 인간의 행위나 주변의 상황에 구애됨 없이 오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일찍부터 베풀어져 있었다. 백성들은 단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었다. 따라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이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14:9.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표현은 그 정복이 밥먹는 것처럼 쉬울 것이라는 의미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라는 표현은 가나안족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에 의한 보호를 의미하는 듯 하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교시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질문하라: 여러분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의 뉴스를 보는가? (손을 들어 표시하게 하라.) 손을 든 사람들에게 질문하라, 왜 당신은 그것을 보는가? (대답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라: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능한 답변들: 시간이 없다, 다른 것으로부터 뉴스를 접한다; 나쁜 소식을 듣기 싫어한다.) 우리의 매일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것들, 사람들, 혹은 단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가능한 답변들: 광고, 친구, 가족, 교육자, 사장, 상사 혹은 동료.)

학습인도

3. 이렇게 말하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괜찮거나 혹은 더 좋을 때도 있다. 하지만 때론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반대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를 따르도록 원하실 때가 있다. 오늘 성경 공부는 비록 소수에 속했었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하게 말한 사람에 대한 것이다. 성경 민수기 13장을 펴라. 학습공과에 나오는 인물 차트를 펼쳐서 주목하게 하라. 갈렙이 구약의 어느 시대 인물이었는지 보도록 하라. 학습공과에 있는 도입부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랑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땅 근처에 이르렀음을 설명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열두명의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지시했음을 지적하라. 반원들 중 자원자 한 사람이 민수기 13:2, 17-21, 25절을 읽게하라.

4. 이렇게 말하라: 오늘 핵심본문은 이 열두명의 정탐꾼이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개의 청취팀을 나누어서 한쪽 팀은 낙관적인 보고를, 그리고 다른 팀은 비관적인 보고를 듣게하라. 한 사람이 민수기 13:26-33절을 읽게하라.

5. 큰 종이나 칠판에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라고 적고 각각 그 밑에 "결과" 라고 써라. 반원들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무엇이었는지 각각 말해보도록 하라.

| | |
|--|--|
| <p>좋은 소식 열매가 기가 막히다! 먹을 것이 풍부하다 우리는 확실히 정복할 수 있다.</p> <p>결과</p> | <p>나쁜 소식 크고, 강하고, 힘센 백성 크고 요새화된 도시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p> |
|--|--|

6. 이렇게 말하라: 그 결과는 민수기 14:1-10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 반원들이 자원해서 그 결과들을 열거할 수 있도록 하라. 반원들이 대답한 것을 차트에 기록하라. 질문하라; 왜 우리는 뉴스들이 비극적이거나 인간의 "사악한" 면에 대해서 주로 듣게 된다고 생각하는가? (대답할 시간을 주라.) 질문하라: 이번 성경공부에서 어떤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답: 부정적인 면).

적용격려

7. 학습공과에 나오는 "질문"을 참조하라. 시간이 허락되는대로, 이 질문들을 반원들과 토론하라, 특히 2번 3번을 하라.

8. 이렇게 말하라: 우리는 각각 갈렙의 기회를 경험할 때가 있다 (만일 당신이 개인적인 경험이 있다면 나누도록 하라.)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당신이 크고 작은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주님과 깊고 성숙된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러한 기회를 깨닫도록 준비해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고 40년을 광야에서 낭비했다. 비록 갈렙도 그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세월을 보내야 했지만 중국에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의 믿음에 크게 보답해주셨다.

| | |
|--|---|
| [제 4 과] | 슬로브핫 자매들 |
|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민수기 27:1-11</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민수기 27:1-11; 36:1-12</p> | <p>학습주제 올바로 처리되지 않은 법에 대해 용감하게 주장을 함.</p> <p>탐구질문 올바로 시행되지 않는 법이나 관습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p> <p>학습목표 올바로 시행되지 않는 법이나 사회적 관습에 대해 올바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운다.</p> |

성경주해

배경이해

본장은 전체적으로 토지 분배(土地分配)의 원칙 제정이라는 측면에서 앞의제 26장의 보충 기사적 성격이 강하다. 먼저 전반부 1-11절은 자기 가정에 전쟁에 참가하여 땅을 분배받을 남자가 남아 있지 않은 므낫세 지파 슬로브핫 딸들의 소청으로 하나님께서 먼저는 일단 슬로브핫 딸들도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일단 기업 분배가 끝난 후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딸들의 상속권도 인정하도록 추가 규정을 주시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것은 혹자가 피상적으로 이해하듯이 딸들의 상속권이 인정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즉, 평상시에도 딸이 아들과 같이 상속권을 보장 받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각 가정 단위로 골고루 땅이 분배 되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소위 이스라엘의 만민 토지 소유원칙이었다. 그런데 이 토지 분배는 각 가정 단위로 그리고 백성 위주로 이루어지게 돼 있었다. 그러나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경우처럼 한 가정 안에 그 가정을 대표하여 땅을 분배받거나 상속받을 남성이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장은 이런 경우에 한하여서만 각 가정 단위의 만인 토지 소유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여성이 대신 분배권과 상속권을 행사하도록 추가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훗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각 가정에 땅을 상속 받을 남자가 없는 경우 미혼의 딸이 이를 상속하였을 때 그 여성이 결혼하더라도 각 지파 각 가정의 법이 보존되도록한 규정은 민 36장에 설명되어 있다.

본문해석

슬로브핫의 딸들

27:1. 요셉의 아들...슬로브핫의 딸들 - 여기에는 슬로브를 가정의 7대(代) 족보가 간략히 언급되었다. 이러한 족보는 가장 압축된 형태의 역사로서 성경에는 새로운 세대의 시작 예고나, 또는 밝히고자 하는 인물들의 역사성을 강조할때 종종 지시하고 있다. 또한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언약 백성을 인도해 오셨는가를 보이시기도 하신다. 한편, 본문은 기록된 내용이 허구가 아닌 역사성을 지닌 진실임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겠다.

27:2. 그들이...가로되 - 슬로브핫의 딸들은 가나안 정복 후 각 지파의 영토 분할에 있어서 그 해당자가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만 국한된 지시 사항(26:52-56)을 전해받고 큰 고민을 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아버지는 이미 죽었고, 그들중에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자신의 가족은 원칙대로 하면 기업을 받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

회막문에서 - 회막이 봉헌된(출40장)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 중심의 생활을 했다. 이는 그들이 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행위이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표시이며, 또한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과 연관된 종교적인 것임을 나타낸다. 한편 슬로브핫의 딸들이 상속 문제를 가지고 회막문에 이른 것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어 정당한 판결을 받기 위함이었다. 특히 그곳에는 종교, 사회 각 방면의 지도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그들이 그곳을 찾았던 것이다. 온 회중 - 모든 백성들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좀더 제한적으로 백성들을 대표하는 각 지파의 두령들이라 보는 것이 좋다.

죽음의 원인이 죄에 있음을 아는 슬로브핫 딸들

27:3. 아버지가...자기 죄에 죽었고 - 슬로브핫의 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고라 일당의 반역에 참여함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자격과 권리를 박탈당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여느 일반인들처럼 필연적인 죽음으로 종말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들은 만일 아비에게 아들이

있었더라면, 그에게 물려주었을 기업을 자신들에게 주어 아버지의 이름이 대대로 보존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한편 슬로브핫의 딸들은 아버지의 죽음 원인을 '죄'라 단정함으로써 바른 인간관(시14:2,3; 롬3:10-12)을 가졌음을 보여 주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더불어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27:4. 어찌하여...아버지의 이름이...삭죄되리이까 - 가나안 땅의 분배 규정상(26:51-53) 딸들에게는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아들이 없이 죽은 슬로브핫의 경우(26:33) 그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상속은 물론 그가족의 대(代)가 끊어지고 만다. 그러나 만약 규종을 초월하여 그녀들이 결혼 전에 기업을 물려받게 된다면, 결혼하더라도 그 기업은 자신의 남편을 통해 계속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남게 된다. 아마 이때 남편은 처가에(妻家)의 일원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그 딸들은 아버지의 후손이 받게 될 기업을 지금 요청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예는 야일의 경우(32:41; 신3:14), 야르하의 경우(대상2:34,35), 그리고 바르실래의 경우(스2:61; 느7:63) 등에서 볼 수 있다.

27:5. 그 사연을...품하리니 - 직역하면 '그 사건을 여호와 앞에 가져왔다'가 된다. 특별히 여기서 '품하리니'는 '가까이 오다', '가져오다' 등의 뜻인 '카라브'에서 유래한 말이다. 그러므로 본절은 '모세가 그사건의 전 내용을 여호와께 가까이 가지고 가서 그분께 소상히 아뢰었다'는 의미이다. 이는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정 정치(神政政治)의 한 단면이다. 실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지혜를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롭고 정확한 응답을 해주신다(렘33:3).

27:6-11. 결국 슬로브핫 딸들의 주장은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 딸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다. 이 판결은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상속법 판례가 되었다(11절). 따라서 아들이 없는 집안의 경우 그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딸도 없을 경우 그 기업을 아버지의 형제들(가까운 근친 순으로)에게 돌아가도록 규정되었다. 한편 딸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을 경우, '결혼으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의 지파간 이동을 방지키 위해 그녀는 오지 자기 지파의 남자하고만 결혼할 수 있었다(36:6).

의로운 슬로브핫의 딸들

27:7. 딸들의 말이 옳으니 - 여기서 '말이 옳으니'에서 '옳다'는 '의롭다'는 의미도 지닌다. 그러므로 본문은 단순히 '그 말한 것이 맞다'는 뜻 이상으로서 '그 말한 내용이 의롭다'는 의미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 즉 조상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소멸되려는 것을 막으려 했던 그 딸들의 주장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았던 것이다. 이처럼 그 딸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축복(기업)을 타인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거룩한 집념이 있었다. 이러한 집념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 다가오셔서 의롭다 인정하신다(왕하2:9-22).

27:8. 딸에게 돌릴 것 - 딸도 상속권을 얻을수 있다는 새로운 법조문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제한적인 법률로서, 여자가 상속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1)아버지에게 상속할 아들이 없을 경우라야 했고 (2)그리고 상속받은 딸은 반드시 같은 지파의 남자와 결혼해야 할것 등의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했다.

27:9,10. 딸도 없거든...그 형제에게 - 여기서 '그 형제'란 자녀가 전혀 없기에 그의 땅을 타인에게 상속할수 밖에 없는 딱한 처지에 이른 바로 그 사람의 형제를 가리킨다. 그 아버지의 형제- 자신의 기업을 아들, 딸, 형제에게도 물려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른 바로 그 사람의 백부(伯父)나 숙부(叔父)를 일컫는다. 한편 본문과 앞절(8절) 및 후절(11절)를 종합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은 순위의 상속권 법이 생긴다. 즉 어떤 사람(Someone)을 중심으로 (1)S의 아들 (2)S의 딸 (3)S의 형제 (4)S 아버지의 형제 (5) 그외 S와 가까운 친족 순(順)이다. 이로 볼 때 상속권 법은 상속자의 이름및 권리가 가장 오랫동안 잘 보존될 수 있는자에게 상속될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Pulpit Commentary).

27:11.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나눠주신 각 지파의 땅들이 계속해서 그 지파내에서 전수되기를 원하셨다. 본절이 바로 그러한 취지에서 명령된 것으로 상속이 최소한 그 지파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이다. 사실 이스라엘인들은 토지가 타지파로 넘어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철저히 경계하였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지파내의 토지 상속을 통해 당신이 이스라엘 각지파, 각 인격을 공히 사랑하시며 각자의 하나님이 되심을 강력히 시사하셨다. 이러한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법규가 바로 여성 상속권 허용과 희년 제도이다<레25장>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칠판에 다음과 같이 써라: "그것은 공평하지 않아!: 우리는 모두 이런 말을 들어보거나 혹은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사용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먼저 피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좀더 심각한 진술에 이르기까지 생각해 볼 것이다. 칠판을 두 영역으로 나누어 대답을 기록하라.

| 피상적인 것 | 심각한 것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아이가 씨리얼 박스 상을 받음 -한아이가 주사를 맞고, 다른 아이는 주사를 맞지 않음. -나이, 등 -대학 풋볼 순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료는 승진하고 당신은 못함 -인종차별 -인신매매 -노예제도 |

2. 다음과 같이 말하라: 우리는 아마도 불공평한 때를 보거나 들었거나,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오늘의 공부는 이러한 불공평을 용감한 믿음으로 지도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올바른 판결을 받는 이야기다.

학습인도

3. 슬로브한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아온 이유는 무슨 말을 들었기 때문일까? 26장에서 답을 찾아보자.

4. 슬로브한의 딸들이 ‘아버지는 자기 죄에 죽었다’고 말한다. 이게 무슨 자랑인가?

5. 아버지의 이름으로 땅을 받아서 시집을 가면 어떻게 될까?

6.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의 기업이 사라진다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당찬 딸들의 요구가

출애굽 이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 공부: 인도자 지침서

제대로 받아들여졌는가?

7. 기업(땅)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적용격려

8. 다음과 같이 말하라: 우리는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한 구석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한 용감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없다면 왜 그런가?

9.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학습공과의 "참고" 부분을 참조하라.

| | |
|--|--|
| <p>[제 5 과]</p> | <p>여호수아: 하나님을 따르며 지도함</p> |
| <p>핵심본문 여호수아 24:1-3, 13-27</p> <p>배경 여호수아 24</p> | <p>학습주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면서 그의 백성들을 지도했다</p> <p>탐구질문 당신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가?</p> <p>학습목표 하나님을 신실하고 온전히 따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함.</p> |

성경주해

배경이해

본장은 백성들에 대한 여호수아의 최후 권면과 그의 죽음 등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본문은 전장(路場)에 이어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는 장면이다. 즉.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세겜으로 부른 다음(1절)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맺은 사실(2, 3절)과 이삭의 출생(3절), 야곱과 그 자손의 애굽 이주(4절) 등에 대하여 회고한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5-7절) 및 광야 생활(7절), 요단 동편 아모리인의 멸절(8절), 발람의 저주 사건(9, 10절), 가나안 땅의 정복 및 정착(11-13절) 등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지난 날의 이스라엘 역사를 순차적으로 회고한다.

이러한 역사 회고는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이심을 깨닫게 하고 저들로 자급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의 조상 역시 우상을 섬기던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불러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2, 3절)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하였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다.

출애굽 이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 공부: 인도자 지침서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한시라도 자긍해서는 안 되며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롬 3 : 24).

소집 (24:1-2a)

24 : 1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여기서 '모든 지파'는 23장에서 거론된 지도자들만의 집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즉 지금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온 백성을 세겜으로 모이도록 한 것이다. 한편 '세겜'은 예발 산과 그리심 산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직후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대로 이 두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곧 축복과 저주의말씀을 엄숙히 낭독한 바 있다(수 8'30-35). 그러므로 다시금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의 행한 바를 교훈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후 단을 쌓았던 곳이며(창 12:6, 7), 야곱이 이방 신상을 묻 었고(창 35:4), 또한 요셉의 뼈를 묻은 곳(32절)으로,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주는 곳이었다(Keil).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일부 학자들은 본절을 두고 성막과 언약궤가 실로에서 세겜으로 옮겨갔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그 총회에 모인 백성들로 하여금 경외감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 앞'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언약궤 혹은 성막 앞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행위의 종교적인 특수성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그 행위가 하나님의 편재와 특별한 관계 하에 수행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다(Herg-stenberg). 더욱이 역사상 여호수아에 의해 실로에 세워진 성막(수 18 : 1)은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 실로가 함락되기까지(삼상 4'1-린) 계속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4 2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다. 이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며. 자기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전해야 한다. 그리고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자의 말씀씨에 의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고백적인 형식 (24:2b-13)

강 저편.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지방. 곧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살던 '갈대아 우르'를 가리킨다(창 11:31 :행 7:2-4).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서 '다른 신'이 어떤 종류의 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이 '드라빔'을 가졌던 것으로 보아(창 31:19. 34)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신이었던 월신(月神)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아브라함 개인이 이러한 우상들을 섬겼는지 여부는 밝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 섬겼던 우상

숭배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의 소명이나 이스라엘의 선택은 그들의 공적이나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사역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Keil).

24.3 본절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브라함 자신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것뿐임을 다시 한 번 시사해 준다(창 15:7), 즉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오늘날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흠모할 만한 위인으로 인정 되고 있으나 그러한 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상 숭배 풍습과 세속적 생활 속에 젖어 있었던 것이다. 이에 의거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이 은혜로써 건짐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은혜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으니 다시는 죄악 중에도 돌아가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24 4 하나님은 이삭에게 두 백성들의 조상이 될 야곱과 에서를 주셨고, 에서에게는 세일 산을 소유로 주셨다(창 36 : 6). 그러나 본절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무엇을 소유로 주셨는지 언급하지 않고 다만 그와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사실만을 간략히 다루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조상들의 역사에 관하여 익숙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Keil). 세일 산. 사해로부터 아카바 만까지 이어지는 아라바 동쪽에 남북으로 뻗은 산맥이다. 그 기슭에는 석회암이나 점토질의 바위들이 널려 있고. 그 위에는 사암으로 된 불규칙한 봉우리와 절벽들이 있는 거의 황폐화된 곳이다. 하나님은 이곳의 원주민인 호리 족속을 내어쫓고 이곳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셨다(창 32: 3;36: 20).

24:5-8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 부분이다. 한편 여기서 여호수아가 출애굽 사건을 이와 같이 간략히 취급하는 것은 그것의 중요성이 작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출애굽사건 지체에 대하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삼 출애굽 사건을 자세히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24: 9, 10 민 22 : 1-6주석 참조.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 내었으며. 비록 발람은 악하기를 하였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허락했다면, 그 저주는 실제로 효력을 발생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의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서 이스라엘을 발람의 악한 꾀계에서 건져내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발람의 악한 마음을 바꾸시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 어두움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까지 간섭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다.

24 12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여기서 '왕벌'은 사해 주위와 사막 지방 또는 팔레스틴 여러 지역에서 자생하는 '왕벌'로서, 숲이나 덩굴 사이를 지나는 군인을 습격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패에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종종 '공포와 원수'로 상징 되기도 했다(시 118:12). 그러나 본절의 '왕벌'은 단순히 자연적인 곤충으로 볼수 만은 없다. 그래서 흑자는 '왕벌'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침략하기 전에 가나안을 침략했던 이집트 왕으로 보기도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에 이집트 왕의 군복에서 왕벌 그림이 발견되었다.

요구와 반응 (24:14-24)

24 : 14 그러므로 이제는...여호와만 섬기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전역사 가운데 은혜로 섬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한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도록 촉구하고 있다. 즉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맹목적인 순종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로 인한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을 촉구하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처럼 역사상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회중이 충동으로나 억압이 아닌 충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촉구한 것이다. 것처럼 많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이스라엘이 수차례의 경고와 징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굽과 광야의 우상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24 : 15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전역사를 개관하며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섬리를 밝힌 후,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한다. 특히 14절에서는 '여호와만 섬기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반면 본절에서는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함으로써, 백성들 스스로 섬길 자를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참다운 경배는 마음에 뿌리를 두고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하는바 명령이나 금령으로 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Keil).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우상 둘 다를 섬길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신앙의 중간 지대란 없기 때문이다(왕상 18. 21 ; 마 6. 24). 즉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듯이 누구도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것이다(고후 6'14-16). 엄밀히 말해서 신자와 불신자의 가치관은 전혀 반대 방향이다. 물론 동일하게 발맞출 수 있는 것이 있긴 하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지엽적인 것일 뿐 추구하는 지향점이 서로 다르니 가치관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즉 누구든지 하나님과 세상을 두고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를 선택한 사람은 다른 하나를 결단코 거부해야 하는 것이다.

24: 10-18 여호수아의 촉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변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큰 이적으로 보호하시며 가나안 땅에 거하던 이방 족속들을 물리쳐 주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심하였다. 한편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여태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또한 여호수아의 신앙에 영향을 입었기 때문이다.

24: 19-28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여호수아의 요구에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했지만(14-18절) 여호수아는 여전히 백성들이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갈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그는 본문에서 백성들로부터 재차 다짐을 받은 후에야(19-24절) 비로소 언약을 세우고(25절) 기념비를 세워 증거를 삼는다(26-28절).

계약 (24:25-27)

24 25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이것은 세겜에서의 언약을 갱신했음을 의미한다(수 8 30-35). 한편 여기서 '율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호크'(7R)는 제정된 법규, 곧 '성문법'을 의미하며, '법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쉬파트'는 '지시', '명령', 곧 '율법'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엄밀하게 구분되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모든 규례를 뜻한다.

24 : 27 이 돌이 들었음이라. 여호수아는 돌이 마치 이성(理性)을 가진 것처럼 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 돌은 기념비로 세워졌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모든 말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으며, 추후에도 이 사실들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Keil).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노트카드와 연필을 반원들에게 나눠주라. 반원들이 각각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을 열 명까지 기록하게 하라 (예: 선생님, 부모님, 목사님, 아이, 혹은 친구). 3분 정도 시간을 주라. 그 다음에 반원들이 자기들이 기록한 것을 훑어보게 하라.
2. 질문하라: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학습인도

3.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이다. '아브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였는데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어느날 밤에 아브람은 우상을 전부 때려 부셔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특별히 불러내었다는 뜻이었다. 이 말과 상반되는 말을 본문에서 찾아보자.

4. 2-13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좀 특이하다.

- 1) '내가, 나는'이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출애굽 이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 공부: 인도자 지침서

2) 그렇게 되풀이해서 자신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3) 결론적인 핵심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5. 23장에서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유언을 한 셈이고, 이제는 일반 백성들을 상대로 진짜 유언을 하는 셈이다. 모세 때부터 수없이 반복되고 여호수아가 또 반복해서 하고 싶은 이 유언의 요지도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인가?

6. 여호수아의 신앙이 잘 표현된 말은? 그 앞에 생략된 말도 보충해보자.

7. 23절을 보면 아직도 백성들 중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 것 같다. 도대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대목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눈으로 보면서 살아온 자들이 어떻게 아직도 이방신을 가지고 있던 말인가? 그러나 사고 방식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우리 주변에도 워낙 흔한 일이니까 놀라운 일은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별로 마음이 찢리지도 않은 채 이방신(神像이었든, 경향이었던 간에)을 버리지 않는 것은 어떤 사고방식에서 가능한 일일까?

8.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는 말은 좀 애매하다. 쉬운 말로 바꾸어 보자.

9.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여호수아라는 증거가 될 곳과 다른 사람이 가필을 했음이 틀림없는 부분은 어디인가?

10.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하면 돌을 세웠다. 우리나라에도 광개토태왕비를 비롯하여 진흥왕 순수비(순수가 純粹로만 알았지 巡狩라는 뜻이 있다는 것은 너무도 오랜 후에 알았다.)나 각종 공덕비가 많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돌과 우리나라의 비석과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적용격려

11. 11번 문제를 참고해서 우리도 돌을 세우는 것이 성경적이다.

아니 반드시 세워야 한다. 어디에 어떻게 돌을 세우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보자.

| | |
|---|---|
| [제 6 과] | 강력한 리더십 발휘하기 |
|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사사기 4:1-16; 5:1-7</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사사기 4-5</p> | <p>학습주제 여선지자이자 사사인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치는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다.</p> <p>탐구질문 여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p> <p>학습목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드보라의 역할을 파악한다.</p> |

성경주해

배경이해

사사 에훗과 삼갈의 활약으로 80년 동안을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던 이스라엘(삿 3:30)은 에훗 사후 다시금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 받시켰다(1절). 이에 하나님은 하술 왕 야빈을 들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기까지 무려 20년 동안을 압제하게 하셨다(2, 3절).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당신에게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았으니 이제 사사 드보라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려하신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또다시 보여 주고 있는 본문은 우리들에게 다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교훈해 준다. 첫째, 하나님께 대한 범죄의 기준은 인간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1절). 이러한 사실은 성도의 행동 기준이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함을 교훈해 준다(롬 8 : 4). 둘째, 죄는 계속되는 안락 중의 나태함에서 비롯되기 쉽다는 점이다. 즉, 이스라엘의 80년 간의 평화(삿 3:30)가 범죄와 방종을 불러 왔듯이 세 상 안일은 성도들을 자칫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의 길로 빠지게 만들기 쉬운 법이다(눅 12:7). 성도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 경성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셋째, 죄는 회개할 때까지 자신을 괴롭히는

올무가 된다는 점이다(3절, 사 3:9, 15).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범죄 하였을 경우 즉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시 51:3, 4). 넷째, 하나님은 회개하고 당신께 부르짖는 자의 음성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점이다(4절). 사실 그 같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악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롬 6:1, 15) 연약하여 범죄하는 자들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변함없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아닐 수 없다(시 130:41 요일1:9).

본문 해석

지도력의 위기 (4:1-3)

4:1 에훗의 죽은 후에. 이 말은 역사적 시점의 변화를 알리며, 아울러 독자들로 하여금 에훗의 죽음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 말은 에훗 통치 하에서 누렸던 태평 성대가 끝났음을 암시하며 동시에 배교와 재난의 시기가 임박하였음을 말한다 (사 3:11참조). 또....악을 행하매. 이 구절은 사사기서의 표준적인 도입부로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 숭배에 빠졌음을 말한다(사 2:19; 3:7). 여기서 '또'는 이스라엘의 죄가 끊임없이 반복되었음과 그들의 부르짖음이 진정한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고통을 해결키 위한 부르짖음이었음을 알게 한다.

4:2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 수 11:1-13에 의하면 하솔 왕 야빈이 갈릴리 지역의 여러 도시국가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막으려다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패하여 하솔이 불에 태워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본절에도 하솔 왕 야빈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 11:1의 야빈과 본절의 야빈은 시대적 시점상 동일인일 수 없으며 동일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야빈이라는 이름은 하솔 왕의 세습적 칭호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마치 애굽 왕들을 '바로'라고 부르듯이. 한편,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 섬멸당했던 하솔이 어떻게 다시 강성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북부 가나안 지역에 다 진멸되지 않았던 몇몇 성읍들의 거민들이 연합하여 세운 나라일 것이라고 추측된다.

4:3 철 병거 구백승. 철 병거는 고대 히타이트를 중심으로 하는 팔레스틴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강력한 병기로 애 굽에까지 그 명성이 알려질 정도였다(사 1:19). 어쨌든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철 병거 구백승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대단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지금 드보라의 출현을 앞둔 시기에는 20년 동안 이민족을 섬기며 살았다. 이렇게 갈수록 압제 기간이 늘어가는 것은 갈수록 그들의 죄악이 깊어갔음을 말하며 그에 따라 하나님의 징계도 가중되어 갔음을 말한다. 여기서 더욱 슬픈 사실은 이렇게 징계가 가중되어 가도 백성들의 죄악은 결코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학대하다'의 원어 '라하츠'는 '누르다'라는 뜻으로 항상 힘센 자가 약한자를 착취하는 모습을 그리는 단어로 사용된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출애굽 이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 공부: 인도자 지침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시스라에게 심히 착취당했음을 알 수 있다.

시대의 여인 (4:4-10)

4:4 '여선지'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로 부터 영감을 받은 여자 선지자란 의미이다. 한편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받은 자였다. 그리고 '드보라'는 꿀벌을 의미한다.

4:5 하나님은 범죄의 대가로 야빈에 의해 학대를 당하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그들을 구원할 자로 여선지 드보라를 세우셨다(1-4절). 본문은 바로 그 드보라와 그녀의 명령에 순종한 바락의 활약에 대한 언급이다. 그녀의 명령에 순종한 바락의 활약에 대한 언급이다. 여선지자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서 선지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4, 5절). 그리하여 바락으로 하여금 스볼론과 납달리 지파의 용사들을 이끌고 게데스에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대적하라고 명한다(6-10절). 이를 본 시스라는 철 병거 900승과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상대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바락에 의해 완전히 섬멸당한다 (11-16절) .

사실 20년 동안 야빈의 압제에 시달린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를 갖출 수 없었음은 물론 군사의 훈련이나 전쟁의 전술을 미처 생각할 수도 談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당시 최고의 병기였던 철 병거 900승을 소유한 야빈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만 큼이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그러나 드보라로부터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갔던 바락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실제로 대승을 거두었다(12-16절). 이는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을 의지하는 신앙에 달려 있음을 다시한번 입증해 주는 쾌거였다. 즉, 여선지자 드보라를 무시하지 않고 그녀를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 믿고 순종한 바락의 신앙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 온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4:5 종려나무 아래 거 하였다는 것은 그곳에서 장막을 짓고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종려나무 아래 '앉아서 공무를 집행했다'는 뜻이다. 이는 '거하다'의 원어 '야샤브'(3벌)가 '거하다'의 의미 뿐만 아니라 '앉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 근거한 주장이다.

그에게...재판을 받더라. 이는 재판이 사사의 직무 중 하나였음을 보여 주는 단면임과 동시에 백성들이 그를 사사로 인정하며 따랐음을 나타내는 단면이다.

4:6 '바락'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천둥', '번개'이다. 이는 그가 여호와와 '번쩍이는 칼'이 되기 위해서 부름 받았음을 암시한다. 다불 산은 이스라엘 골짜기 북동쪽에 있는 해발 400m 높이의 봉우리이다. 한편, 이 산은 납달리, 스볼론, 잇사갈 지파의 경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세 지파의 군사력을 집결시키기 용이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높은 고지였기 때문에 평지에서 철 병거로 무장한 적을

출애굽 이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 공부: 인도자 지침서

아래에 두고서 공격하기 용이한 장소였다. 따라서, 다불 산으로 가라는 명령은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내려진 명령임을 알 수 있다.

4:7 NEB는 '기손 강'을 '기손 급류'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폭우가 내리거나 우기(雨期)가 되면 큰 물이 흐르지만 건기에는 강바닥이 말라붙는 하상(河床), 즉 '와디' (wadi)를 뜻하는 것을 염두에 둔 번역이다. 이 '기손 급류'는 다불 산 서남쪽 약 16km 지점에 있는 에스드랄론 남쪽 산악지대에서 발원하여 스불론, 납달리, 잇사갈 지역을 통과하여 지중해로 흘러들어 간다. 또한 기손 강가에는 넓은 들이 있어 철 병거를 배치하기엔 적당했다. 한편 '이끌어'의 원어 '마쇼크'는 '끌다', '유인하다'의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손 강으로 이끈다는 것은 기손 급류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시스라의 군대를 유인해 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는 메말라 있던 강에다 폭우를 내려 그 일대를 범람케 함으로써 마른 평야지대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야빈의 철 병거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음을 알 수 있다(삿 5:20, 21).

4:8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바락은 드보라가 그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야만 한다는 조건 하에서 그 명령을 받아들인다. 즉 그 순종은 조건을 앞세우는 조건부 순종이었다. 따라서 이는 여호와와의 절대 명령에 대한 합당한 응답이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드보라를 통한 하나님의 신탁을 의지한 것도 아니다. 단언 하자면 본질의 바락의 말은 그의 불신앙을 대변해 준다. 이는 9절에서 더욱 확실해진다.

4:9 바락에 대한 드보라의 응답은 '그와 함께 간다'는 것이지만 그 요청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여인이 이끈 승리 (4:11-16)

4:11 드보라의 출정에 대하여 기록하다가 헤벨이 언급되는 까닭은 17--22절에 걸쳐 소개되고 있는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소속 가문을 소개하기 위함이었다. 동시에 헤벨이 겐 족속의 거주지인 남방에서 북방인 납달리까지 이주해 온 것은 야엘을 야빈의 시스라를 죽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신적 섭리임을 암시한다.

4:12 타불 산에 오른 것을.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서 모은 일만의 군사와 바락이 다불 산에서 시스라를 칠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일컫는 말이다.

4:13-14 본절에는 납달리, 스불론 지파에서 뽑은 일만 명과 바락의 군대가 공격 태세를 갖추었다는 점담꾼의 소식을 들은 시스라의 대응이 기록돼 있다. 기손 강 유역에는 철 병거를 배치시킬 수 있는 약간의 넓은 땅이 있었기에 시스라의 행동은 타당한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시스라의 행동은 드보라를 통하여 밝힌 하나님의 전략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에 대한 증거이다.

4:15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이는 전쟁의 주역은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그의 군사들, 즉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지혜였음을 말해 준다. 이 작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사 5:20에 기록되어 있다. 즉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과 시스라의 군대가 기손 강 유역에서 전투를 벌이게 해놓고는 하나님이 그 지역에 폭우를 쏟으신 것이다. 그리하여 메마른 강바닥이 광란하는 급류로 바뀌고 그 주위는 흙탕물이 넘쳐서 금새 수렁으로 변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병거는 수렁에 빠져 진퇴양난의 궁지에 몰리게 되었을 것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사실은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맨발로 도망한 것을 보다 더 잘 이해케 한다. 한편,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경무장한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4:16 시스라가 아직껏 병거부대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의 군대를 추격하되... 시스라의 본거지인 '이방 하로셋'까지 추격했음을 말해 준다. 성서 기자는 여기서 이방 하로셋까지 추격하여 시스라의 온 군대를 쳐부수는 일에는 바락이 성공했지만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잡는 일에는 실패했음을 은근히 말함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누가 시스라를 잡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과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시스라와 야엘 (4:17-22)

4:17 본문은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패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최후폭'야빈의 파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스라엘과의 다불 산 전투(12-16절)에서 패한 시스라는 간신히 목숨만을 건져 평소 야빈과 친분이 있던 헤벨의 집으로 도망하여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숨는다

4:18절. 그러나 시스라는 드보라의 예언(9절)대로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에 피살당함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17-22절). 그리고 시스라가 없는 야빈은 점차 쇠잔 해지고 결국 파멸을 맞고야 만다(23, 24절). 시스라는 피곤하여 육신의 잠에 빠졌다가 연약한 여인의 손에 의해 비참하게 죽임당해 영원한 잠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우리가 대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상대의 철병거와 같은 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불신앙 때문임을 일깨워 준다.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이 곧 승리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4:19 목이 말라 물을 요청한 시스라의 말은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추격을 피해 급박하게 도망쳐 온 데 따르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그리고 '부대'는 액체를 담기 위해 만들어진 가죽부대를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포도주나 우유 그리고 물 등의 음료를 담는데 사용했다. 한편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젖은 곧 영긴 젖(사 5:25)으로 요쿠르트와 비슷한 최고급 우유를 말한다. 이와같이 야엘이 최고급 우유로서 시스라를 마시게 했다는 것은 그에 대한 대접이 극진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4:20 본절에는 쫓기고 있는 시스라가 야엘에게 당부하는 말이 적혀있다. 그 내용인 즉 자신의 도피처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라는 부탁이었다.

4:21 '살쩍'의 원어는 '라카'로서 '머리의 옆면' 즉 관자놀이를 의미한다. 야엘은 급소인 관자놀이를 침으로써 무딘 나무로 다른 부분을 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시스라를 죽일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야엘이 연약한 여자로서 장막 말뚝을 박아 망치질하여 시스라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장막 세우는 일이 일반적으로 여자들의 일이었으므로 그러한 용구를 다루는데 익숙했기 때문이다.

4:22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일을 마친 후 바락을 맞이했으므로 드보라의 예언(9절)은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전쟁의 영광은 전투를 치른 바락이 아니라 적장을 죽이고 전쟁을 종식시켜 완전한 승리를 가져온 '한 여인', 야엘이 받게 되므로 그녀의 예언은 적중했다.

승리의 노래 (5:1-7)

5:1 전통적으로 이 승전가는 '드보라의 노래'라고 알려진다. 말하자면 이 노래가 드보라의 작품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바락이 함께 이 노래를 불렀다는 데서 저작(著作)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드보라가 지은 시를 바락이 같이 불렀을 수도 있고, 드보라와 바락이 화답송의 형식으로 불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작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작의 문제가 아니라 승리의 날에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다.

5:2 이스라엘의 두령은 백성의 지도자와 군대 장관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헌신'의 원어 '나다브'(313)는 '군인으로 지원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 구절은 일반 백성들도 기쁨으로 전쟁에 가까이 참여하였음을 나타낸다. 특히 이는 바락이 게데스에서 군사를 소집할 때 백성들이 그 소집에 순응했음을 표현하는 말이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서 드보라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희생적으로 시스라를 쳐부수고 해방을 가져 오는 전쟁에 참여하도록 역사하셨다는데 있었다.

5:3 왕과 방백들은 세계의 모든 나라 즉 열방들의 지도자를 지칭한다(시 2:2; 합 1:10). 이와 같이 열방들의 지도자들을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열심을 열방들에게 선포하기 위함이었다.

5:4 본절에서 드보라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고 있다. 세일에서...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보여주셨던

위엄에 찬 모습과 광야 노정동안 보여주셨던 권능들을 회고할 때 사용되곤 한다(신 33:2; 시 68:8; 합 3:3).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묘사이거나 표현이 아니라 출애굽에서 가나안 입성까지 모든 권능으로 역사하심을 회상시킬 때 사용되는 시적 표현이다.

5:5 '진동'은 하나님 에서 자신을 계시 하실 때 일어나는 자연 현상으로 구약에서 묘사되고 있는데(출 19:18; 시 97:5) 이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알리는 수단이었다.

5:6 본절에서 8절까지는 드보라가 백성들의 어머니로 등장하기 전에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을 기록하고 있다. 대로는 대상들이 지나 다니던 무역로를 일컫는 말이며 '대로가 비었다'는 말은 무역로에서 항상 볼 수 있었던 대상들이 끊겼음을(RSV) 의미한다. 즉 이는 무역과 상거래 행위가 끊기므로 인해 이스라엘의 경제가 황폐화되었음을 표현한다.

'소로'는 '꼬불꼬불한 길', '결길', '굽은 길' 등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여행자들이 꼬불꼬불한 길로 다녔음을 말한다. 이렇게 백성들이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결길로 다녔다는 것은 얼마나 이방 족속의 압제를 심하게 받았는가를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5:7 '어미'는 드보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모성애에 비유하여 표현한 말로서 (Keil , Delitzsch) 이는 드보라 자신이 야빈의 압제 아래서 학대 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었다는 말이다. 또한 이스라엘이 환난을 피할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반원들에게 오늘날 리더십이 발휘되는 영역을 말해보도록 하라. 마커보드에 대답을 받아 써라. 일 분 정도가 지난 뒤 반원들이 각 영역에서 남자와 여자 지도자를 언급하게 하고 같은 마커보드에 받아 써라. 질문하라, 남자와 여자 모두 리더로서 자격이 있고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2. 다음과 같이 말하라,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네 명의 사람, 두 명은 여자이고 두 명은 남자를 보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는 구약 성서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드보라에 집중하게 될

출애굽 이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 공부: 인도자 지침서

것이다. 오늘 수업을 하면서 우리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완수하는 일에 우리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학습인도

3. 사사시대의 드보라가 어느 시대의 인물이었는지 가리키기 위해서 학습공과의 "성서 인물 차트"를 참조하라. 배경 설명을 위해 구약 시대에 "사사"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4:1에 나오는 "악"이 무엇인지 (2:11-19절을 보라); 성서에서 예언자의 역할들에 대해 간단하게 준비하도록 하라. 또한 본문에 나오는 지명들을 설명할 때 성서 지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라. 또한 야빈 군대의 900 승마차의 중요성, 즉 그들은 당대에 기술적으로 앞선 전쟁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을 토론하라.

4. 사사기 4:1-7, 8-16, 그리고 17-24절의 각 부분을 읽으라. 학습공과에 이 인도자 지침서에 나오는 성경주해를 활용하여 각 부분의 사건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라. 사사기 4:1-6, 8-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본문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본문에서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사람은 정확하게 누구를 믿고 있는가? 이어서 다음 질문을 하라, 누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리고 누가 사람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것은 지도력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적용격려

5. 첫번째 단계에서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말한 목록으로 가라. 질문하라, 이 지도자의 자질들 중에서 어떤 것이 오늘 수업에 나오는 4 명의 주요 인물 - 시스라, 바락, 야엘, 드보라 - 에게서 보이는 자질이라고 생각하는가? 질문하라, 이것에 근거해서 당신은 드보라와 다른 사람들의 지도력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6. 학습공과에 있는 질문을 사용해서 토론하도록 하라.

| | |
|--|---|
| <p>[제 7 과]</p> | <p>사무엘: 최고의 충성을 신실하게 보임</p> |
| <p>핵심본문 삼상 12:1-5, 13-25</p> <p>배경 삼상 8: 11-12</p> | <p>학습주제 사무엘은 그가 주님께 온전히 신실했었음을 단언했고 그들도 역시 주님께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신실하게 섬겨야 함을 경고했다.</p> <p>탐구질문 당신은 어디에 당신의 최고의 헌신을 행하는가?</p> <p>학습목표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을 드렸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도록 격려했는지에 대한 주요 요소들을 파악하고 하나님께 내가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길을 결정하도록 한다.</p> |

성경주해

배경이해

이스라엘의 왕정은 과거 신정 체제로부터의 혁명이나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으로 그 옛날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서 언약 국가를 수립한 이래 계속되어 온 신정 체제에서 자연스럽게 이양되어 건립되었다. 이는 비록 정치체제의 형식은 왕정 체제로 바뀌었으나 내용적으로는 신정 체제와 마찬가지로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실천하기 위한 체제로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처럼 이스라엘이 과거로부터 연속된 신정 왕국 체제를 건립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선민 언약 국가로서의 역사를 계속 유지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이스라엘 왕정 체제는 신정적 일관성을 계승한 신정적 왕정 체제이었음이 강조되어 있다.

이처럼 사울 등극 과정을 통한 이스라엘 신정 왕국 건립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일련 기사의 종결부인 본장은 사울 왕의 공식 즉위로 이제 신정 체제가 종결되고 황정 체제가 공식 출범하는

때에 즈음하여, 그 자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신정 체제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동시에 이제 출범 하는 왕정 체제 건립을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산파 역 할을 담당했던 사무엘이 남긴 경고와 권면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다.

본문 해석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겼다. (12:1-5)

본장은 모세 시대 때부터 사무엘 때까지 계속되어 온 신정 체제가 종결되고 왕정 체제가 공식 출범하게 된 시점에 즈음하여(1, 2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정 체제 출범의 산파 역할을 담당했던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경고와 권면의 설교를 행한 데 대한 기록이다. 그 가운데서도 먼저 본문은 이하 진행될 자신의 설교가 전혀 사심이 없는 것임을 강조하고 그 설교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행한 양심 선언이다. 즉 사무엘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삿**이 하나님과 백성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된 자 앞에서도(4, 5절) 청렴결백한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3절). 그런데 역사상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자기 양심에 비추어 볼 때 권력을 가진 자 중에 이와 같이 청렴결백 하다고 증거받을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 아마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처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었다고 하겠다(잠 28 1).

그렇다면 오늘날 정치인들이 사무엘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는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통치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통치 원리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자기 유익과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속이거나 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 지도자는 국민을 지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셋째는 뇌물을 먹거나 부정 축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뇌물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부정 축재는 국민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짓이기 때문이다(출 20:17). 넷째는 권력의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적절한 시기에 물러날 줄 아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역사는 권력의 자리에 연연한 자의 종말이 무엇인지 잘 증거해 준다(삼상31:1-13).

사람은 배신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다 (12:6-12)

12:6 이처럼 사무엘이 과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상기하고 있음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저들이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취하고 있는 행동이 그릇된 것임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께선 과거 애굽에서 억압받고 학대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친히 지도자를 세우사, 그들의 인솔하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분이시다. 이는 곧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시요,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인간 지도자를 세워 주시는 분임을 증거해 준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한 것은 일종의 반역 행위가 아닐 수 없다.

12:9 앞서 8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점차 여호와를 의식치 아니하고 그분과 맺은 언약을 성실히 지키지 아니했음을 지적하는 구절이다(삿2:10, 11). 사실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의 영도자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의 가르침을 좇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과 맺은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수 24:31). 그러나 이후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비교적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고 여호수아도 죽자 점차 여호와를 잊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기 시작한 것이다(삿 21:25).

12:10 본절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는 저들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11절)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재정립에 있었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저들의 안녕은 열방과 같은 왕정 체제 구축 따위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다.

12:11 여호와께서....건져내사.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어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구절이다. 즉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지라도 저들이 돌이킬 경우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 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 하시고 마침내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저들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언약(출 19:6)에 근거한 것으로 하나님의 신실성을 다시한번 증거 해 준다.

12:12 사무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과거 역사를 상기한 데 이어(6-11절) 이제 현재의 문제인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 언급한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환난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저들이 회개하면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저들이 암몬 족속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왕을 구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의 침입과 관련, 왕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같은 환난의 근본 원인인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어야 했다. 한편 본절 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후 암몬의 침공을 맞이한 것(삼상 11:1-11) 외에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암몬의 위협을 당한 사실이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주 하나님을 경칭하고 그를 따름 (12:13-18)

12:13 여호와께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동기가 그릇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동의하거나 기쁘게 받아들여 왕을 세우신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이란 앞 구절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다만 이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삼상 8:10-18)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을 가리킨다(삼상 8:22).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니 왕과 백성들 모두 자신들의 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여전히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12:14-15 비록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 왕정 체제를 구축했음지라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과 백성간의 관계에 의하여 흥망이 결정되어진다. 즉 하나님의 축복과 징계의 기준은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있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에 신실하심과 그분의 통치 원리가 불변함을 보여 준다.

12 : 17, 18 이스라엘에서 보리는 대개 3-4월경에 베고 밀은 5-6월경에 베다. 이때는 늦은 비 (신 11:14)가 그치고 건조기가 시작되는 때로서 봄 추수의 적기이다. '우뢰'는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 주는 현상으로 언급된다. 여기서도 비가 내리지 않는 건조기에 '우뢰와 비'가 내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앞으로도 저들이 불순종하면 받게 될 징벌을 경고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이다. 그러기에 이러한 현상을 본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 사무엘을 두려워 하였다.

고백,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12:19-23)

지금까지 사무엘은 자신이 아무런 사심이 없음을 밝힌 가운데 백성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경고하였다(1-18절). 그에 이은 본문은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로하며 권면함으로써 그의 설교를 마무리하는 장면이다. 즉 사무엘은 자신의 책망과 경고를 듣고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은 백성들(19절)에게 비록 왕정 체제를 요구했던 저들의 동기와 자세는 나빴지만 왕정 체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님을 밝힌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왕정 체제가 수립 되었으니 그 같은 체제하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진실히 섬김으로 민족적 멸망의 비극을 당하지 말라고 권면한다(20-25절). 그러면서 덧붙여 자신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선하고 의로운 도로 그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다짐한다(23절). 이는 비록 시대적 변천에 따라 인간제도나 정치형태는 변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시니 이데올로기나 정치 체제에 관계없이 늘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는 것이야말로 축복과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교훈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12:19 하나님의 진노의 징조를 본 백성들은 죽음의 공포에 싸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죽음에서 구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러자 사무엘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결단코 쉬지 않겠다고 확약한다(23절). 한편 성경에는 타인의 죄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가 자주 나타난다 (민 12:13 ; 신 9:20; 롬 1:9 ; 골 4:12).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의 중보자로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12:20 본절은 회개에 합당한 참된 열매를 맺으라는 권면의 말임을 알 수 있다.

(마3:8). 사실 회개하고서도 여전히 죄악 중에 머무는 것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잠 26:11).

12:22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이름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되었으니 본절은 '하나님의 신실성 불변성을 인하여'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기 백성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념하여 각자가 그 뜻을 좇아 살아야 했다(출 19: 3-6).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다음과 같이 말하라, 오늘 수업은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이다. 사무엘이 일선에서 은퇴하면서 고별설교 하는 장면이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사용해서 토론을 인도하라: 어떤 사람이 고별 설교를 할 때 어떤 분위기가겠는가? 고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고별 설교를 해본 적이 있는가? 고별 설교에서 우리는 무엇을 들을 것 같은가? 왜 그것은 중요한가?
2.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무엘의 설교를 읽게 될 것이며 그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어떻게 표현했으며 하나님께서 충성에 관련되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배우게 될 것이다.

학습인도

3.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서 특별히 자신의 어떤 점이 떳떳하다고 하는가?

4. 사무엘의 회고 내용을 요약하면

- 1)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나
- 2)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잊었다.
- 3) 그래서 하술, 블레셋, 모압의 압제를 받았으나
- 4) 너희들이 회개함으로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게 하셨다. (사사기의 요약)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이어졌는가?

(예상되는 대답: 그런데 왜 하나님을 버려두고 왕을 세우라 하느냐? (백성들은 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함)

5. 이왕에 왕을 주시기로 하셨으면 그냥 주시지 또 무슨 잔소리가 그리 많은가? 하나님께서 섭섭해서 그러시는가? 아니면 다른 의도가 또 있는가? (예상되는 대답: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소원을 들어 준 것이니까 그런 줄 알고 앞으로는 왕을 중심으로 잘해라. (왕정하에서도 이스라엘의 안녕과 구원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가능하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다)

출애굽 이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 공부: 인도자 지침서

6. 밀 베는 때에 내리는 우뢰와 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7.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 다니는 것이 싫어질 때가 있다. 마음껏 놀러 다니고, 좀 나쁘지만 재미있어 보이는 일이 참으로 많아 보인다. 실제로 해보면 가슴 두근거리는 스릴까지 더해져서 영영 교회를 떠나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가능성을 막아주는 것은 무엇인지 본문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시오. (예상되는 대답: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잊지 않는 것(24) ;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 데요? -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이 빨리 자라도록 해야 한다.)

8. 당신이 사무엘에게서 지도자가 배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9.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 없이 반복되어진 고질병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스라엘이 건재한 것은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신적 기원). 그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은? (예상되는 대답: 22절, 하나님의 선택,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 결국 우리의 이야기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원인이 있으므로 구원을 선물이라 한다.)

적용 격려

10. 기도하기를 쉬면 罪인가?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가? 당신이 사무엘의 이 진술로 산다면 당신의 기도생활이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 | |
|---|--|
| <p>[제 8 과]</p> | <p>다윗과 나단: 죄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p> |
| <p>핵심본문 삼하 11:2-15; 12:1-13a</p> <p>배경 삼하 11-12</p> | <p>학습주제 하나님의 예언자 나단으로부터 죄의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가증스러운 죄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받아들였다.</p> <p>탐구질문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p> <p>학습목표 왜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책임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진술하고 이 진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한다.</p> |

성경주해

배경이해

본장은 지금까지의 순종과 축복으로 일관된 복된 생활에 참담한 고통을 가져온 다윗의 밋세바 간음 사건과 그녀의 남편 우리아 살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먼저 1절은 다윗 범죄의 배경으로서 이때가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의 수도 랍바를 점령하기 직전이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2-5절은 다윗의 밋세바 간음과 밋세바의 잉태에 대하여, 6-13 절은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전투 중에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그의 아내 밋세바와 동침하도록 시도한 사실에 대하여, 14-25절은 다윗이 1차 계략에 실패하자 2차로 요압에게 은밀히 청부하여 우리아를 죽게 한 사실에 대하여, 26, 27절은 우리아의 장례식과 다윗이 밋세바를 아내로 취한 사실, 그리고 밋세바가 아들을 낳은 사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다윗의 범죄는 단순한 일개인의 신앙적·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신정 왕국의 대표자인 왕으로서 공의의 의무를 저버린 것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규례에 대한 불순종이다. 또한 다윗의 범죄는 한 유부녀와의 간음이라는 엄청난 범죄 이후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심지어 자신의 충성된 부하조차 살해하는 살인의 죄까지 자행한 것으로, 그 잔학성(殘虐性)을 부인할 길이 없는 것이었다.

사실 다윗은 평소에도 이런 범죄를 범할 소지는 충분히 갖고 있다. 즉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신 17:17)라는 왕으로서의 절제를 그는 평소부터 어기고 그동안 많은 첩들과 아내들을 거느렸다. 한편 하나님은 다윗이 이토록 범죄 하였지만 한 번 주신 다윗 언약을 폐하지 않으시고 먼저 회개하는 그에게 범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셨으나 다윗 자체만은 구원해 주시고 나아가 그를 통해 구속사를 계속 진행하시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게 하셨다(마 1:1). 이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본문해석

다윗의 무서운 죄악들 (11:2-5)

11:2 팔레스틴은 아열대 지방이다. 그런데 아열대 지방 사람들은 한낮의 뜨거운 열기를 피해 일손을 멈추고 낮잠을 즐기는 관습을 갖고 있다. 다윗이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행동을 가리킨다. 그러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중에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다윗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였다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해이하여 안일주의의 삶에 빠져 있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높다란 왕궁의 지붕 위(옥상)를 거닐던 다윗은 우연히도 밧세바(3절)가 목욕하는 장면을 목도하게 되었을 것이다.

11:3 다윗은 예기치 못한 장면을 본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욱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그녀를 취하기 위해 여인의 신상(身上)에 대해 묻고 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때문이라는 사실이 본 사건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헛 사람 우리아는 다윗의 삼십 칠인 용사들 중 한 사람이다 (삼하 23:39). 헛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의 둘째 아들인 헛의 후손(창 10:15)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정착시대까지 팔레스틴에 거주한 원주민이다. 되어 있다.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다윗은 아마도 그녀가 미혼이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는 죽임을 당케 되는 율법 규례가 있었기 때문이다(레 20:10). 그러나 다윗의 정욕은 그녀가 남의 아내라는 사실을 무색케 만들었다.

11:4 히브리 원문상으로는 밧세바가 자신의 부정함을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녀와 동침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다윗에게 정조(貞操)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후 자신의 부정함을 씻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RSV). 한편 밧세바는 율법의 규정상 유부남(有婦男)과 유부녀(有夫女)가 간통하였을 경우

둘 다 사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 규례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레 20:10). 그리하여 다윗에게 자신의 잉태 소식을 알리는 가운데 해결책을 강구해 주도록 부탁하였을 것이다.

다윗이 자신의 죄악들을 은폐하려 하다 (11:6-15)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자신과 관계한 일로 인해 잉태하자(5절) 이를 은폐 조작하기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급히 소환하여 그의 아내와 동침하게 하여 잉태된 아기가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꾸미려 했다(7-8절). 그러나 다윗의 그러한 간악한 계획은 우리아의 충성스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만 수포로 돌아가고말았다(9절).

11:6-7 헛 사람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라.... 다윗이 인간적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 첫 단계이다. 즉 그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1절)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소환하여 밧세바와 동침케 함으로 자신의 간통 사건을 숨기려 한 것이다.

11:8 ‘발을 씻으라’는 히브리인들의 관용적 표현으로 ‘폭 쉬어라’, ‘휴식을 취하라’는 말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이나 여행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먼저 발을 씻고 휴식을 취했다(창 18:4). 이는 저들의 신이 일종의 샌들(sandal)이었는데 일을 하거나 장거리 여행을 하면 가장 먼저 발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집에 내려가서 휴식을 저하라는 다윗의 배려 이면에는 우리아로 하여금 밧세바와 동침케 하여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는 다윗의 간악한 음모가 숨겨 있다.

11:9 여기서 '왕궁문'이란 왕궁 문을 지키는 왕궁 관리와 시위병들의 숙소를 가리킨다(왕상 14:27, 28). 즉 우리아는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라는 왕의 배려를 사양하고, 왕궁 시위병들의 숙소에서 잠을 잤던 것이다. 이는 곧 자신의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중에 자신만이 집에서 편히 쉴 수 없다는 군인 정신과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11절).

11:10-11 이 구절에서 우리는 우리아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과 상관에 대한 충성심, 인간미 넘치는 전우애(戰友愛)를 잘 볼 수 있다. 한편 평상시라면 다윗은 이러한 말에 감동을 받아 자신을 돌아보는 중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죄로 인해 양심이 무디어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에만 급급하였는데(12-15절) 아마도 자신의 범죄 사실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왕권이 위태해질 것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인 것 같다.

11:12-13 다윗이 저를 술을 취하게 한 것은 우리아로 하여금 그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는 못된 수작이다. 즉 다윗은 가치 판단을 무디게 하는 술로써 우리아를 취하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 성적 충동을 느끼게 하여 자신의 목적하던 바를 이루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다윗의 이같은 음모도 결국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치 않으므로 무산되고 말았다.

11:14 우리아를 밧세바와 동침케 하여 자신의 성 범 죄를 은폐 하려한 계략이 무산되자 다윗은 이제 밧세바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될 우리아를 아예 죽여 버림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꾀한다. 그리하여 우리아의 손에 왕의 친서를 맡겨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 속에는 우리아의 상관인 요압으로 하여금 우리아를 죽이게 할 것을 명하는 지시가 들어 있었다(15절). 이는 과거에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가슴 아파한 다윗의 모습(삼상 24:5, 6)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것으로, 이제 그의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고 그의 영혼이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서 더욱 깊은 수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인간의 그릇된 정욕은 그 영혼의 눈을 멀게 할 뿐 아니라 그 마음을 강박케 하며 양심을 마비시키고 마니 누구든 삼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잠 6:20-35).

11:15 다윗은 우리아가 적과의 전투 중에 전사한 것으로 꾸미기 위해 요압의 손을 빌린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고귀한 인격을 지닌 우리아를 도구화하고 무고한 희생을 치르게 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다. 따라서 우리아를 죽음에 처하게 한 그의 행위는 단순한 살인 행위 이상의 엄청난 죄악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다윗의 살인 명령 (11:14-27)

11:14-16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장면이다. 즉 그는 특히 강병(強兵)이 지키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파악, 짐짓 우리아를 그곳에 투입하여 죽게 만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아의 죽음이 요압에게도 그 책임이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비록 왕명이긴 하나 요압은 자신의 부하 우리아가 왜 죽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더 나아가 다윗에게 선처를 부탁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던 자이기 때문이다.

11:17-18 우리아는 다윗이 획책했던 대로(15절) 결국 죽고 만다. 그런데 이 비참한 죽음은 요압이 다윗의 살인 술책의 도구가 됨으로써 가능했다. 즉 요압은 어떻게 해서든 다윗에게 잘 보여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고 부하의 생명을 희생물로 삼은 것이다. 이것은 요압이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에 불과한 다윗은 의식하면서도 은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11:19-24 이번 전쟁에서 예상 외의 인명 손실이 커지자(17절) 요압은 이번에도 간악한 간계를 꾸민다. 그것은 곧 다윗에게 전쟁결과를 보고하면서 다윗이 명한 대로 우리아가 전사 하였다는 점을 강조, 인명 손실이 큰 데 대한 다윗의 추궁을 면하려 한 점이다(27, 21절). 이로보아 요압은 우리아를 죽음에 처하도록 사주(使鑿)한 다윗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실수를 덮어 버리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다윗의 추궁을 피하기 위한 요압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함축적인 의미를 정리할 수 있다. 즉 ① 우리아를 죽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 적지 아니한 인명 손실이 불가피 하였다. ② 그러나 다윗이 원한 대로 우리아는 죽었으니 그것으로 아군의 인명 손실은 상쇄(相殺)됨이 마땅하다. ③그런즉

출애굽 이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 공부: 인도자 지침서

아군의 인명 손실은 더 이상 내게 추궁하지 말라는 것이다.

11:25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전쟁에서의 인명손실 문제로 인해 추궁을 당할까봐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다. 즉 다윗은 자신의 목적했던 바(15절)가 이루어졌기에 여타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념치 아니한 것이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군의 인명 손실 여부보다는 우리아의 죽음 여부가 더 우선적인 관심거리였다.

11:26-27 여기서 '밧세바'가 '우리아의 처'로 언급되고 있음은 우리아가 자신의 아내의 문제로 인해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음을 은근히 강조하기 위한 것인 듯하다. 한편 히브리인들의 경우 예외적으로 70일간(창 50:3) 또는 30일간(민 20:29)은 자를 위해 애곡한 경우가 있긴 하나 대개 7일간 죽은 자를 위해 애곡한다(삼상31:13). 따라서 밧세바 역시 우리아의 죽음으로 인해 7일간 애곡하였을 것이다.

11:27 다윗이 이처럼 서둘러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은 이미 밧세바가 임신 중에 있었기 때문이다. 즉 다윗은 밧세바가 사람들의 눈에 띄일 정도로 배가 부르기 전에 얼른 아내로 삼아 자신의 죄악을 은폐하려 한 것이다.

부유하고 잔인한 사람의 비유 (12:1-6)

12:1 만약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여전히 죄를 안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죄에 무디어졌을 것이다(롬 1:28). 한편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적 개입이 다윗의 범죄 이후 '약 1년 후' 즉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맺어 잉태한 아이(삼하 11:4)를 해산한 후에 일어났다는 점이다(14절; 삼하 11:27).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디 개입하신 이유에 대하여선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① 다윗으로 하여금 그 동안 죄로 인한 영적 고통을 경험하게 하여 그 후로는 범죄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시 31:10). ② 일 년 동안이나 기다려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다윗의 강박한 심령을 당신께서 친히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한편 나단(Nathan)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다윗 앞에서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용감하게 외치며 불의를 지적하고 있다 (7-12절).

12:2-3 여기서 '암양 새끼'는 밧세바를 의미한다. 다윗의 많은 아내와 달리 그녀는 우리아의 단 하나 뿐인 아내였다. 가난한 자의 식구들과 새끼 암양간의 동고 동락(同苦同樂)하는 모습에 빗대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삼하 11:2-5) 전, 우리아와 밧세바 사이의 애정과 삶이 단란하고 화목했음을 표현한 것이다. 즉 밧세바는 단순히 우리아의 소유라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아의 지극한 사랑과 돌봄을 받은 아내였던 것이다.

12 4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히브리인의 아름다운 관습이다(레 19:34; 신 10:19). 그런데 이 경우는 부한 자가 자기의 소유로써 나그네를 환대치 않고 오히려 가난한 자의,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양을 강탈하여 나그네를 대접하였으니 도리어 극악한 범죄 행위인 것이다. 이는 결국 다윗이 정욕에

이끌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한 것이 어떤 이유로도 변명될 수 없는 가증한 범죄 행위였음을 강조해 준다.

12:5 본절에서 우리는 다윗의 2가지 측면을 보게 된다. ①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 다윗의 노여움은 왕으로서의 당연한 분노였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으로서 국가를 평안히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 백성 중에 이 평화를 그르치려는 자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② 인간으로서의 다윗의 모습.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의 기회를 잊어버린, 그래서 그 마음에 사랑이 식어버린 다윗의 노여움이다. 결국 사랑이 없는 노여움은 범죄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일 것이다. “마땅히 죽을 자라”... 이 말은 결과적으로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를 정죄한 꼴이 돼버렸다(7절).

12:6 여기서 '사 배'는 타인의 소유물을 도둑질한 자가 원주인에게 갚아 주어야 하는 보상 한도이다. 다윗은 5절에서 '부한 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데 이어 배상의 의무까지 지우고 있다.

다윗의 자신의 죄를 고백하다 (12:13a)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의 이같은 죄의 고백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뉘우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 왜냐하면 다윗의 이 회개의 고백에는 다음 3가지의 성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① 변명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회개이다(Keil). ② 나단의 책망을 들은 즉시 고백한 회개이다. ③ 겸손한 회개이다(Rust). 즉 다윗은 왕이라는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인간으로서 겸허히 하나님과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이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회개하여야 할 것인지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여기서 '사하다'는 말은 '없애다', '극복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사유의 은총을 베푸사 처음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은총은 다윗의 회개를 들어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다윗과 맺은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이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자녀들이, 혹은 어린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반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라. 그리고 아이들의 대답은 정직한 것이었는지, 그렇지 않은 것이었는지 물어보라. 각각에 대한 반원들의 마음은 어떠했었는지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라.
2. 오늘 수업은 죄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받아들이는 주제에 대한 것임을 말하라.

학습인도

3. 본문을 읽고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다윗의 잘못은 무엇인가?
(예상되는 답; 몰래 본 것, 보고 누군지 알아본 것, 불려서 동침한 것, 우리아를 집에 보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한 점, 정신이 희미해지도록 술을 먹인 점, 충성스런 신하(들을)를 죽게 한 점, 밧세바를 데려온 점 등)
4.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나 사울에게 쫓기면서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다. 많은 후배들의 기를 꺾어놓을 정도로 위대한 신앙의 선배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잘못을 범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예상되는 대답; 한창 전쟁을 치르던 시절이 지나가고 국내외적으로 거의 안정을 찾아서 평안해졌을 때 마음마저 느슨해진 탓 - 이만하면 됐다고 마음을 놓을 만할 때 신앙의 위기가 있을 수 있다. - 왕들이 출전할 때에 온 이스라엘이 암몬과 싸우고 있을 때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있었으니)
5. 집에서 쉬지 못하는 우리아의 말에서 그를 칭찬한다면?
6. 밧세바가 잉태한 사실을 왜 알렸을까? 책임지라고? 레20:10을 참고 하자.
7. '발을 씻으라' 이 말은 먼지가 많고 건조한 사막 지역에서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가리킨다. 즉 쉬라는 인사이다. 이 좋은 인사말이 여기서 어떤 음흉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8. 요압도 비판을 받는다면 어떤 비판을 받게 될까?
(예상되는 대답; 충성스런 신하를 죽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명령에 의문이나 다른 건의를 생각해보지

출애굽 이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 공부: 인도자 지침서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신복들을 죽게 했으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위대한 장군도 아니다. 거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소인배일뿐)

9. 나단의 비유에 나오는 다음 말은 각각 누구(무엇)를 가리키는가?

- 1) 부자 - (다윗)
- 2) 가난한 자 - (우리아)
- 3) 양과 소 - (여러 부인들)
- 4) 작은 암양 새끼 - (밧세바)
- 5) 어느 행인 - (정옥)

10.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속이거나 실족케 한다면 우리의 죄목이 무엇일까?
(예상되는 대답: 하나님을 업신 여긴 죄(9,10) ↔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고전8:11))

적용 격려

11. 다윗이 범죄 한 것은 하나님을 잊은 탓이요, 정욕에 이끌린 탐욕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 유혹에 빠져 죄를 짓지 않아야 하지만, 때로 우리는 수많은 유혹들이 넘치는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실족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도 만든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 |
|---|--|
| <p>[제 9 과]</p> | <p>아모스: 용감하게 반대를 무릅쓰</p> |
| <p>핵심본문 아모스 1:1-2; 2:6-16; 7:10-17</p> <p>배경 아모스 1-2; 7</p> | <p>학습주제 비록 아모스가 전문적인 종교 지도자로서의 지위가 없었지만, 그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다.</p> <p>탐구질문 누구의 소리가 당신에게 가장 끌리는가?</p> <p>학습목표 내가 하나님의 소명에 반응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서 아모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용감하게 섬겼는지 분석하고 방법을 생각한다.</p> |

성경주해

배경이해

아모스가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당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정치·경제·군사적으로 크게 번영하던 때였다. 특히 북왕국 제13대 왕 여로보암 2세(B.C.793-753년)는 팔레스틴 북쪽에 위치한 신흥 강대국인 앓수르의 계속된 공격으로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진 아람(수리아)을 공격하여 그 수도인 다메섹을 정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압까지 공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땅의 북쪽 경계지인 하맛 어귀(민 34: 8)에서 남쪽 아라바 바다(염해)까지 그 영토를 넓혔는데(왕하 14:25-27),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듯 광대한 영토를 차지한 때는 통일 왕국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면 여로보암 2세 치하 때뿐이었다. 여로보암 2세는 국가 경영에도 능하여 지리적 여건을 이용한 중개 무역으로 국가의 부를 크게 증진시켰다. 이로써 북이스라엘은 다윗, 솔로몬 이후 명실상부한 경제적, 정치적 최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서 고금(索西◎今)을 막론하고 한 나라가 외적으로 크게 번영할 때는 항상 그 이면에 극심한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있었으며 물질 만능주의와 현세지향적이고 극단적인 인본주의적 이

기심이 팽배했었다. 이스라엘도 이에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흔히 오해하듯 외적인 번영 자체가 곧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인 양 생각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같은 경제적, 정치적 호황이 계속되자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아무런 가책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일신상의 안일만을 위하여 사치와 방탕을 일삼고(6:4-6) 세법을 악용하여(5:11) 가난한 자를 착취하며(2:6), 의인 학대하기를 그치지 않았다(5:12).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생활은 단지 하나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으며 단지 제사와 절기를 형식적으로라도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신들을 영원히 멸망치 않고 번영하도록 지켜 보호하실 것이라고 믿었다(4:4-5; 5:21-24). 게다가 그들은 지극히 배타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선민 의식(選民意識)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자신들을 보호, 구원하시고 이방 열국에 대해서는 장차 '여호와와 날'에 멸망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5:18-20). 이에 아모스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회복함으로써만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을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달자(1:1-2)

왕국 시대 중 비교적 평화로웠고, 경제, 정치적으로 번영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모스의 활동 시기는 웃시야왕의 통치 중반기로, 웃시야가 교만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병에 걸리기 이전 시기로 추정된다. 여기서 언급된 여로보암은 일명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데 그의 치세기간 (B.C.793-753년)에는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최대의 융성기였다. 그러나 이렇듯 당시의 북이스라엘이 융성하게 된 것은 여로보암 2세의 개인적인 용병술과 전략이 출중했던 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속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보셨던 까닭이었음을 성경은 잘 지적해 준다 (왕하 14 26, 27). 그러나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융성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는 빈부 격차의 심화와 사치, 방탕, 도덕적 부패 등 온갖 사회적 불의였다.

여기서 초장은 남왕국 유다의 풍요를 상징한다. 따라서 본 구절은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로 인해 남유다의 풍요로움이 상실될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서 목자라는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언어들 사용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남유다의 초장과 북이스라엘의 비옥한 곳이 황폐화된다는 것은 팔레스틴 전지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황폐화될 것을 뜻한다. 이렇듯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융성기를 맞고 있던 남북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예고는 본서의 서론인 동시에 본서의 시종을 흐르는 기본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1:3—2:5)

다른 선지서 들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과 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뒤에 이방 열국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과는 달리, 본서는 이방 열국에 대한 심판을 먼저 선언하고 난 후에 남유다 (2:4, 5)와 북이스라엘 (2:6-16)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심판의 일반적인 순서를 뒤바꾼 아모스의 의도는 일차적으로 주변 열방에 대한 심판의 선언을 통해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한 후에 보다 효과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방 열국의 죄악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이며 정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즉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 충분할 정도의 서너 가지 죄악들이 다 있었다. 즉 무자비한 살생(3절), 노예 매매(6, 9절), 임산부의 배를 가름(13절) 등 하나님 보시기에 잔악무도한 일을 행한 것이다. 둘째로 그들은 하나같이 선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압제한 자들이었다.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대적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기에 이는 충분한 심판의 사유가 된다. 따라서 이들 각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에 근거할 때 필연적인 것이다.

남왕국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지금까지 선포된 이방 족속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와는 내용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아모스의 메시지가 북이스라엘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유다의 죄는 구체적으로 지적되지는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거짓 것에 미혹된 것, 즉 우상 숭배만을 간단히 책망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유다의 서너 가지 죄'라는 부분과 다음 절에서 선포되는 불의 심판은 앞서 살펴본 이방 족속에 예언된 심판의 선언과 동일한 형식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남유다 역시 이방 열국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 멸망받기에 충분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남유다에서 행하여지는 우상 숭배를 여호와와의 율법을 멸시하는 불경건한 태도와 관련지어 설명하는데, 이는 우상 숭배라는 극악한 범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경솔함에서 비롯 되었음을 보여준다.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선민인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이방 족속들에게 선언된 것과 동일한 심판이 선언된다(1:4, 7, 10, 12, 14 ;2:2). 이 예언은 남유다가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에 의해 멸망됨으로써 그대로 실현되었다 (왕하 25: 9, 10).

집기 백성의 멸망을 부른다 (2:6-8)

본절부터 시작되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는 아모스가 가졌던 주요 관심사로서 본서 본론 부분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그가 비록 남왕국 유다 출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점에서 같은 동포인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자체가 유쾌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럴지만 그는 이런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메시지 그대로를 선포하여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였다.

여기서 젊은 여인은 바알이나 아스다룻의 신전에 거하며 종교적 의식의 한 가지로 성행위를 하는

'성창'(聖娼 ; sacred harlot)을 가리킨다(호 4:14). 즉 본절에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윤리적인 범죄가 종교적 타락 행위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에 더하여 선지자는 부자(父子), 곧 아버지와 아들이 한 사람의 젊은 여자 즉 우상을 섬기는 창기에게 다닌다고 질책한다.

'전당잡은 옷'은 가난한 사람들이 낮에는 겉옷으로, 밤에는 이불 대용으로 쓰는 것으로서 전당잡았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었다(출 22:26, 27).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북이스라엘의 부자들은 전당잡은 옷을 돌려주기는커녕 신전에서 베풀어지는 제사나 술잔치에서 깔고 앉는 자리나 자신들의 종교적인음란 행위를 위한 자리 로 사용하는 비정한 행위를 일삼았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 (2:9-16)

본절에서 11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범죄한 것과는 대조적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셨던 출애굽과 광야 생활 및 가나안 땅 정복 사건에 대한 언급이다. 이로써 아모스는 하나님께 대한 북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한 죄를 책망한다.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그 땅에 거주했던 대표적인 원주민으로서, 특별히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족속으로 유명했다 (민 13:1-33 ; 신 1:28).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가장 결정적인 구원 사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할 때 대표적으로 언급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과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선지자를 세워 주신 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크나큰 배려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율법으로 교훈받을 수 있었다(신 18:15-22). 이를 위해 하나님은 모세로부터 시작하여(신 34:10) 끊임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사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패역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함으로써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 망덕으로 갚았던 것이다. 나시르 사람에게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지림'은 '성별된 자들' 혹은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이다. 성경에 언급된 나실인의 규례를 보면 독한 술을 금하며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으며 부정한 것으로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했다(민 6장).

따라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으로 모독을 준 것(12절)은 곧 하나님의 교훈을 정면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곡식 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 같이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선언으로서 당시 농경 사회였던 북이스라엘에서 gms히 볼 수 있는 소도구를 사용하여 시청각적인 방법으로 예언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즉 본문은 과중한 곡식단을 실은 수레가 그 길의 모든 부분을 짓누르고 가듯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진행될 것임을 보여준다.

한편 북이스라엘에게 극심한 고통을 줄 하나님의 징계는 대적의 침입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급속히 이루어져 아무도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기동력이 있는 자들도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13절에서 밝힌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르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는 도주하는 것이 기적일 만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히 심판하심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이상 아무리 강한 힘과 권세와 지혜를 소유한 자라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모든 종류의 병사들까지 언급함으로써 심판의 맹렬함과 불가피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이를 벗어나려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말씀 전하는 자를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 함 (7:10-13)

때에, 이는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께 받은 환상을 근거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가가 멸망할 것과 베델을 중심으로 한 우상의 신전들이 훼파될 것을 예언한 직후를 이른다. 이곳의 제사장인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큰 권력을 소유한 대제사장과 같은 인물인 듯하다. 이러한 제사장 아마샤가 베델을 비롯한 북이스라엘의 신당들이 파괴될 것과 자신들의 종교적인 입장을 뒷받침 해주는 여로보암 2세 왕가의 멸망에 대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그냥 방관했을리가 만무했을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명예와 부 그리고 권력을 가져다주는 현 상태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것이었다. 이에 아마샤는 자신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 선지자 제거 계획을 즉각 착수하기에 이른 것이다. 아마샤가 진실과 거짓을 적당히 혼합 하여 아모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한 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같은 참람한 위증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앗수르로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한다 (17 절).

아마샤는 아모스를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선지자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다져온 정축 '종교적 기득권을 위협하는 자'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한편 북이스라엘 종교계의 중심 인물로서 큰 권세를 누리던 아마샤가 이토록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모스의 예언으로 인한 충격이 얼마나 심대하였는지를 반증하고 있다. 아마샤는 아모스를 마치 사람들이 바라는 말을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해 나가던 당시의 일반적인 직업 선지자 중의 하나로 여기고 비웃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큰 모욕이다.

아모스의 사명과 용기 (7:14-17)

본절은 표면적으로는 아마샤 개인에게 주는 심판의 경고 형태로 기술되어 있으나, 이 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북이스라엘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먼저 창기가 된다는 것은 아마샤의 아내에게 임할 심판인 동시에 앗수르 군대의 침입 때 북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당할 수치에 대한 예언이다(애 5:11). 아마샤의 자녀들은 물론 북이스라엘의 많은 어린이들이 궁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칼날에 혹은 기근으로 인해 죽어 갈 것이 예언된다. 이같이 자녀들이 죽는 모습은 아마샤를 비롯한 북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가장 큰 슬픔을 줄 것이다(애 2:21). 아모스는

아마샤의 땅은 물론 북이스라엘의 땅이 이방인, 즉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앗수르군의 수중에 넘어갈 것을 예언한다. 아모스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 앗수르의 사르곤 2세 (Sargon II, B.C.722-705년)는 B.C.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뒤 그 영토를 분할하여 이방인들에게 나누어주고, 북이스라엘의 주민들은 앗수르 땅으로 옮기는 식민정책을 폈다. 아마샤 본인에게는 앗수르 땅에 포로로 유배되어 죽임을 당할 것이 선언된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이방 땅으로 유배될 것이 선언된다(왕하 17:6). 이는 결국 아마샤를 그 대표로 하는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의 결과가 자신들 뿐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과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서 우리는 다시한번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지도하며 모범이 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결국은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못했는가? 결정적으로 무엇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는가?
2.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당신이 분명히 필요하고, 꼭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당신이 목사나 전도사가 아닌데 왜 성경을 가르치느냐고 도전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하라; 오늘 본문의 아모스는 바로 전문적인 선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자기의 고향 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에서 전했다.

학습인도

3.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도록 부름을 받은 아모스가 어느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가?
4. 모든 예언서에는 유대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한 예언이 꼭 들어 있다. 호세아만 예외일 뿐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예언에 왜 다른 열방들이 꼭 들어가야 할까?
(예상되는 대답;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5. 주변 5개국의 죄와 벌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면?
(예상되는 대답; 이스라엘이 환란을 당할 때 괴롭힌 죄(비록 가장 먼저 징벌을 받고 사방으로 도망다니기 바빠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
6. 주변 5개국에 대한 예언의 형식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예상되는 대답;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서너가지 죄, 돌이키지 아니 하리라, 불, 여호와와 말씀이니라(두로, 에돔 제외): 자신의 선포가 분명하게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이 가장 강조되어 있다고 보아야겠다. 설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아니,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7. 이스라엘의 먼 외곽에 위치한 나라들(다메섹, 두로)의 죄를 지적할 때 ‘웁소’ 했는데 점점 가까이 오더니(지리적, 인종적으로) 급기야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고를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예상되는 대답; 기절했겠지, 혹은 그럴 리 없다고 생각)

8. 이스라엘의 범죄를 경제적인 것, 성적인 것, 종교적인 것으로 분류해서 말해보라.

- 1) 경제적인 범죄: (의인을 팔며, 궁핍한 자, 가난한 자의 티끌, 겸손한 자의 길)
- 2) 성적인 범죄: (부자(父子)가 한 젊은 여자에게 다님)
- 3) 종교적 범죄: (단 옆에서 전당잡은 옷 위에 누움,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 나실인을 실족케, 선지자의 일을 방해)

9.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닥친다면 다음 중 어떤 사람이 살아 남거나 난리를 피하기에 가장 유리할까?

* 돈이 많은 사람, 학식이 풍부한 사람, 좋은 차를 가진 사람, 배를 가진 사람, 자가용 비행기를 가진 사람, 양심이 고운 사람

(답: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자가 없다. 유리할 듯싶은 그 조건이 오히려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

10. 당시의 전문적 선지자였던 아마샤의 반대에도 비전문가인 아모스가 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상되는 대답: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확실한 소명감이 사명을 완수케 한다. 직업적 훈련보다, 자질보다, 부르심의 인식이 더 중요하다.)

적용격려

11. 다음 각각의 사례를 본문에서 해당하는 구절을 찾아 써라.

ㄱ. 뇌물을 먹고 불의한 재판을 하는 것: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ㄴ. “야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믿었냐? 주일 한 번 빼먹는다고 세상이 끝나냐?” :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는 것)

ㄷ.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열심히 헌금하는 것 :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 것)

12. 이번 주 동안 내가 하나님의 소명에 반응할 필요가 있는 영역은 무엇/ 어디인가 확인하라. 그리고 그것이 많은 반대와 도전에 부딪히는 것일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하라.

| [제 10 과] | 미가야: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
|---|--|
| <p>핵심본문 열왕기상 22:6-28</p> <p>배경 열왕기상 22:1-40</p> | <p>학습주제 미가는 자신의 명성에 해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담대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선포했다.</p> <p>탐구질문 비록 당신에게 손해가 되고 또 위험하지만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당신이 감수하고 극복해야 할 장애물은 무엇인가?</p> <p>학습목표 미가야가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에 권력자들앞에서 어떻게 진리를 선포했는지를 말하고 오늘날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 진리를 선포하는데 방해가되는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알아본다.</p> |

성경주해

배경이해

다수를 역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인기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것이 사람의 목숨과 관련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미국에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없는 일이다. 미국에서는 비교적 소수의 신자들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도 여전히 신앙 때문에 죽는다.

미가야는 잘 알려진 선지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한 용기에 있어서는 그는 거인이었다. 자신을 싫어하는 왕이 포함된 두 명의 왕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왕과 백성들이 원치 않는 말을 할 때 얼마나 그 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출애굽 이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 공부: 인도자 지침서

이스라엘 왕 아합은 국경마을인 길르앗 라못의 소유권을 주장하기위해 아람과의 전쟁을 원했다. 그는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이겨보려고 했지만 이 전쟁으로 아합은 결국 죽음을 맞았다.

미가야는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가운데서 진실을 말했다.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미가야에게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이었다.

본문해석

먼저, 여호와께 물어 보소서 (22:5-8))

22:5 열왕기상의 저자는 여호사밧을 선한 왕으로 묘사했다(열왕기상 22:41-43). 여호사밧은 의의길로 행했지만 “산당”(22:43)은 폐하지 않았다. “그 산당들”에서 일어난 악한 일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14:23-24). 여호사밧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22:43) 따라서 그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기를 요청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다.

22:6. 이스라엘왕은 이 요청을 즉시 받아들였다. 그가 부른 선지자들은 그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격려의 말은 아합이 듣기 원하던 것이었다. 그는 선지자들이 유다왕의 마음을 한결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음이 틀림없다.

22: 7-8. 하지만 400명의 선지자들은 여호사밧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했다. 아합의 선지자들의 하나같은 말 대신 여호사밧은 두 번째 주장을 제시했다.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쉽지 않은 문제 하나가 유다왕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었다.

반감계도 아합은 다른 선지자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함으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고 말했다. 이 말로이미 아합이 이전에 미가야와 대면한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개역성경은 8절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대답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욕구(22:9-12)

22:9-11 그 광장은 크고 도시의 입구에 있었으며 추수할 때에는 거뭇들인 곡식을 정제하고 나누는 곳이었다. 이 곳은 또 많은 군중을 수용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쓰였다.

출애굽 이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 공부: 인도자 지침서

성경의 저자는 이 상황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두 왕들은 왕복을 입고 보좌에 앉아 있었다. 아합의 선지자들이 그들 앞에 나타났고 이것은 인상적이고 근엄한 광경이었다.

시드기야가 그 선지자들의 대표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대변인 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시드기야가 아합의 군대가 아람을 물리칠 것을 상징하는 철로된 뿔을 만들었을 때 화려한 행사가 펼쳐졌다. 그 날, 예언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줄 것이었다.

22:12 다른 선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정말로 그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었을까? 아니면 단순히 왕을 즐겁게 해주려고 한 것이었을까? 어쩌면 둘 다 맞을 지도 모른다. 그들의 사회적 위치와 삶은 철저히 왕의 손안에 있었다. 특히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몇 명의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열왕기상 18:4, 13) 그들의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었다.

1: 400(22:13-18)

22: 13-15 미가야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답을 즉시 주지 않았다. 유다왕의 요청, 선지자들의 행동, 미가야에게 묻기를 꺼려하는 아합,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왕의 사자에게 한 미가야의 응답은 독자로서 하여금 그가 왕과 그의 노력 둘 다를 비난할 것임을 알게 해준다. 처음에 미가야는 왕이 전쟁을 하면 이길 것 이라는 다른 선지자들의 말에 동조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22:16. 아합은 전에 이미 미가야를 대해본 적이 있었다. 그는 미가야가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합의 귀에 미가야의 대답은 빈정거리는 것처럼 들렸고 그 순간 긴장이 고조되었다. 아합은 미가야가 전쟁에 찬성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22:17-18 미가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400명 아합의 선지자들과 상반되는 것이었다. 미가야가 선지자들이 아닌 이스라엘왕에게 말했음을 주목하라.

“목자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는 말은 지도자, 곧 왕의 죽음을 의미한다. “ 이 무리가 주인이 없다” 는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었다. 아합과 그 통치의 종말이 온 것이다.

이 심판에 관한 예언은 백성에게 임할 것이 아니었다. 미가야는 그들이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했다. 심판은 왕을 향한 것이었다.

8절에 나오는 아합의 예언은 맞아떨어졌다. 미가야는 아합에게 “좋은 것” 을 예언하지 않았다!

미가야의 예언은 직접적으로 시드기야와 다른 선지자들의 말과 상반되는 것이었다.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

속이는 영(22:19-23)

22:19-20 미가야는 예언의 배경이 된 환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소서” 하고 말했다. 11절에서 시드기야도 똑같은 말을 했다. 어떤 선지자의 말이 맞는 것인가?

미가야의 용기는 다른 선지자들의 말에 대한 도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자신의 자신이 있다는 증거였다. 미가야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의 뒤에 계시며 길르앗 라못에서 아합을 쓰러뜨리실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22:21-23. 본문에는 하늘에서 열린 회의장면이 나온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지자들의 입에 있는 거짓말하는 영”에 의해서 이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위해 거짓말하는 영을 사용하실 수 있는가? 미가야 시대의 고대 신학에서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통제아래 있었다. 이것은 사울왕을 괴롭혔던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악한 영” (사무엘상 16:14)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한다. 후대의 성경신학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하나님이 나쁜 일을 일으킨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이 점진적 계시의 한 가지 예이다.

아합에게는 여전히 선택할 시간이 있었다. 그는 시드기야의 말보다 미가야의 말을 들을 수도 있었다. 그는 양쪽 모두의 예언을 다 들었다. 그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미가야의 말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두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요청했던 여호사밧도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았다.

진리에서 비롯된 확신(22:24-28)

22:24-25 시드기야는 보통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하는 것처럼 미가야를 후려치려 들었다. 실제로 시드기야는 미가야를 때렸다. 빵을 때리는 것은 욕이었다. 시드기야의 거들먹 거리는 목소리에 반하여 참 선지자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미가야는 그 답을 주님의 손에 맡겼다. 시드기야가 적을 피해 숨어있을 때 그리고 그의 보호자인 아합이 죽을 때 모든 사람들이 누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였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열왕기상 22:24).

22:26-27 아합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물과 떡만 주라고 했다. 이

말은 아합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이 골칫덩어리를 영원히 처리해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22:28 또 다시 미가야는 이 일의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기꺼이 맡겼다. 그는 예언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신명기 18:20-22).

예언이 성취된다(22:29-40)

이 구절들은 이야기의 결말과 아합의 종말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준다. 아합이 비록 변장을 하려했지만 “우연한” 화살 하나가 병거사이에서 이스라엘왕을 맞췄다(열왕기상 22:34). 그리고 그는 그날 죽었다. 창녀들이 목욕하는 곳인 실로암 못(22:38)에서 그의 병거를 씻을 때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았다는 내용을 보아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음을 알 수 있다.

미가야의 예언은 사실이었다. 강한 반대와 위협에 직면해서도 미가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지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분야는 무엇인가? (예: 정치, 경제, 사업, 패션, 과학 등) 를 물어본다. 나온 대답들을 모두 칠판에 적는다. 비록 예언이나 예언자라는 단어들은 자주 사용되지 않지만 현대인들도 미래에 대한 예언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예언자란 말 대신에 어떤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물어본다.(예를들면: 권위자, 분석가, (힌두교 등의) 지도자 등). 이런 사람들의 예언이 맞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언이 틀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예언에 대해 책임져야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가?
2. 본문이 자신이 책임을 져야하는 부정적인 소식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선지자에 관한 것임을 말한다. 그는 헐박과 위협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학습 인도

3. 학습용 공과에서 그 도표를 “ 성격 분석” 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본 과 학습에 사용한다. 또한 만약 성경 세계의 지도가 있다면 이스라엘과 유다(북왕국과 남 왕국), 아람, 예루살렘, 사마리아의 위치를 가르쳐준다.
4. 본문 열왕기상 22:1-28을 쪽 훑어 보도록 지도한다. 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의 이름은 아합 이었지만 본문에는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한다. 학습용 공과와 인도자용 지침서의 성경주해를 참고해 22:5-8을 내용을 설명한다. 이스라엘 왕이 열왕기상 22:8절의 말을 했을 때 왜 여호사밧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5. 10절을 자세히 살펴본다. 왕들은 보좌에 앉아 자신들의 위엄과 능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학습용 공과와 인도자용 지침서의 성경주해를 참고하여 22:11-15 상반절을 설명한다.
6. 22:15 하반절에 나오는 미가야의 말을 다시 한번 읽는다. 미가야가 왜 이런 식의 반응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7. 17절에서 미가야는 자신이 본 목자없는 양처럼 뿔뿔히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환상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는 것과 그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설명을 마친 후 이스라엘 왕이 이 내용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18절을 읽는다. 22:19-23의 미가야의 환상과 22:24-28의 시드기야와 대면 장면을 요약한다. 학습용 공과와 인도자용 지침서 성경주해를 이용해 본문의 내용을 설명해 준다. 열왕기상 22:29-38을 읽고 이스라엘 왕이 전장에 나갈 때 왜 변장을 하고 나갔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것으로 봐서 그가 미가야의 예언에 대해 무엇을 느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또, 열왕기상 21장 19절의 내용을 말해준다.

8. 다음의 질문을 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한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진리를 대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적이 있는가? 언제 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였는가? 하나님의 진리를 대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어떤 경우였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했는가? 무엇을 느꼈는가? 결과는 어땠는가?

적용 격려

9. 본과의 서론과 학습용 공과의 “오늘의 삶을 위하여”를 복습한다. 또한 학습용 공과에서 저자가 나라를 위해 신앙과 애국심을 혼합하고 권력을 기쁘게 하려했던 독일인 기독교인 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왜 애국심과 신앙을 혼합하는 것이 위험한지 그리고 애국심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애국심과 신앙을 혼합하는데서 오는 위험을 피할 수 있을지 물어본다.

10. 학습용 공과에 나오는 질문들에 관해 말해주고 답을 해보도록 한다.

| | |
|---|---|
| <p>[제 11 과]</p> | <p>홀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한 사람</p> |
| <p>핵심본문 역대하 34: 19-31</p> <p>배경 역대하 22:1-23:30; 역대하 34-35</p> | <p>학습주제 여선지자 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했다.</p> <p>탐구질문 우리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하는 방법을 듣기 원하는가?</p> <p>학습목표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했던 홀다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시사해주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p> |

성경주해

배경이해

이스라엘의 왕위

모세(출애굽에서 광야시대까지) 시대와 여호수아(가나안 정복기)시대 이후에는 사사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렸다(사사기). 사사들이 통치하던 혼란한 시대가 끝날 무렵 이스라엘에는 왕조가 들어서게 되었다(사사기 21:25). 사무엘은 초대왕 사울과 이후에 왕이 될 다윗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 왕위세습은 이스라엘의 주변국가들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히브리인들은 이미 시내산에서 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은 그들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이었다(사무엘상 8:1-22; 12:12-15).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고 그들의 왕은 언제나 기름부음 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히브리어로 메시야는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출애굽 이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 공부: 인도자 지침서

자를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왕위는 신정왕조, 즉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이었다(신정주의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기 때문에 인간 왕, 즉 군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러나 구약성경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관한 순탄치 않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신실하고 선한 왕들은 드물었고 그들은 너무 자주 권력에 의해 부패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책임과 시내산 언약을 무시하고 망각하곤 했다.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한 왕이 선한 왕이었는지 또는 악한 왕이었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들의 통치를 평가하는 간단한 기준은 모세의 율법(토라)에 명시된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지키는가 하는 것이었다.

구약에 나타나는 역사적인 기록들

구약성경은 두 가지 수평적인 관점으로 왕국시대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4 복음서가 예수님의 사역을 4개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왕국시대에 관한 이 두 가지의 관점은 각자 고유의 목적과 구조와 주안점들을 갖고 있다.

신명기적인(또는 신명기 저자에 의한) 역사(신명기, 여호수아, 열왕기상하) 서들은 모세의 고별 연설에서부터 B.C 587년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시대 초기까지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포로시대의 관점에서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느브갓네살이라는 이방인 정복자를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왕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역대기적인 역사는(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으며 비록 신명기적인 역사와 비슷한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대를 망라하는 더 긴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수 세기에 걸친 왕조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역사를 살펴보면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을 전무후무한 최고의 빛나는 왕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제 위치로 돌려놓을, 다윗처럼 위대한 기름부음 받은 왕, 즉 메시아의 통치하에서 밝은 미래를 맞게 될 것이었다.

출애굽에 관한 이번 공부는 역대기적인 관점으로 쓰인 요시아왕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매우 유사한 수평적인 관점이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도 나온다. 사실, 우리는 역대기를 신명기 역사가들이 기록한 내용에 대한 후속편으로 보아야한다. 마태와 마가가 자신들의 기록을 입증하기위하여 마가복음의 초판을 인용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보면 왕들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왕들의 행위를 책망하게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권고하셨음을 알 수 있다. 선한 왕들은 선지자들의

출애굽 이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 공부: 인도자 지침서

말을 따르려 했고, 반면 악한 왕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거나 억눌러 버렸다.

B.C 922년 솔로몬의 죽음 이후, 단일 왕국은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되었다. 북부의 열 지파는 여로보암 1세를 중심으로 탈퇴하여 국호를 “이스라엘”로 정하고 사마리아에 수도를 세웠다. 남 쪽의 두 지파는 “유다”라고 불렸으며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 1세의 통치하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유지했다. B.C 722년 북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했을 때 남 유다는 열방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손으로 남아 있었다.

북 이스라엘 왕국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재앙으로부터 돌이킬 것을 경고 하셨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남 유다 왕국에 미가와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연이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유다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고 했던 미가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미가와 이사야의 뒤를 이어 나타났다.

요시아왕이 유다를 통치할 때에 정치적 종교적으로 국가 전체의 운명을 바꾼 역동적인 개혁이 있었다(640-609 B.C). 신정 군주로서 요시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드는데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요시아는 백성을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강력한 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자신과 백성들을 좁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요시아의 뒤를 이은 악한 왕들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를 노골적인 이방인의 풍습으로 바꿔 놓았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충격적이지만 므낫세왕(687-642 B.C)과 아몬왕(642-640B.C)은 유다를 가나안의 풍요의 신인 바알숭배로 끌어들이었다(열왕기하 21장을 보라). 성막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다윗이 꿈꿔왔고 솔로몬이 주 하나님께 바쳤던 아름답게 건축된 바로 그 성전에서 유다의 두 왕 므낫세와 아몬은 이방신을 섬겼던 것이다!

세대를 이어 내려오는 동안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행위가 나라에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 했었다(신명기 28장을 보라). 요시아왕은 바로 이런 극명한 진실을 알게 되었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를 만들기 원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가장 성대한 유월절 예식을 행했다(열왕기하 23장 21-23절에는 짧게 언급되어있지만 여기 역대하 35장 1-19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있다). 그래서 요시아의 올바른 통치가 갑작스럽게 끝났을 때 (역대하 35:20-25), 신실한 사람들은 깊은 영적 위기에 직면했고 하나님께 왜 선한 왕을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게 하셨는지 물었다.

왕으로서 행한 그의 첫 번째 개혁은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 솔로몬 성전을 깨끗케 하도록 명한 것과 성전의 성스러운 구획을 보수하고 하나님에 배한 예배를 회복시킨 것이었다.

출애굽 이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 공부: 인도자 지침서

본문해석

언약안에서 말씀중심으로 돌아가다(34:1-21)

34: 1-7 어린 소년이었던 요시야는 B.C 640년에 왕이 되어 그 아버지의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 B.C632년까지 그는 모든 이방 풍습을 제거함으로 나라의 영적인 방향을 바꿔놓았다.

34:8-13 요시야는 성전 보수를 위한 기금을 마련했고 B.C 621년에 마침내 보수가 시작되었다.

34:14-18 성전 보수가 진행되고 있을 때 대제사장 힐기야가 언약의 규례가 들어있는 두루마리를 발견했다. 히브리어로 토라는 “ 가르침, 설명, 인생의 지침” 을 의미한다. 성전에서 재발견된 그 두루마리가 무엇이었는지는 학자들간에 논쟁이 되고 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신명기의 판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성경은 그 두루마리를 단순히 한 율법(토라) 두루마리 또는 율법(토라)의 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중요한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말씀은 왕 앞에서 낭독되었다.

34:19-21 요시야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삶에 관한 조항들을 듣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겼다. 서기관 사반이 이 말씀을 그에게 읽어줄 때에 그는 전형적인 근동지방의 풍습대로 자신의 탄식과 애통하는 마음을 나타냈다. 실패에 대한 슬픔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왕은 과거에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애통해 했다.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안 왕은 나라가 형벌과 패배로 얼룩질 것을 알았다.

요시야가 할 수 있는 단 한가지 일은 토라의 가르침대로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으로 자신의 지도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신하들에게 “ 나에 관하여 그리고 백성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여쭙어달라” 고 명했다. 비록 오랜 시간 잊혀져 있던 했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이 담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언약안에 있는 국가의 운명의 중심이 되었다.

성경 해석가들의 중요한 역할(34:22-33)

34:22 하나님의 기쁨부음 받은 지혜로운 왕 요시야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 여선지자 홀다는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 부르신 사람이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따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인기있는 종교들을 기쁘게 섬겼다. 그들은 시내산 언약의 일부를 지켰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거의 무관했던 주변 문화의 매력적인 부분 또한 수용했다. 때로 이런 현상은 명목뿐이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위배되는 혼합주의를 양산했다. 그래서 백성들의 기만당하고 있는 삶을 바로 잡아주고 그들 스스로가 만든 합리화된 이방 신들과의 타협에서 빠져 나오도록 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났다.

본문 어디에서도 훌다가 여자였다는 것을 문제삼는 부분이 없음을 주목하라.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그녀의 위치는 그만큼 확고한 것이었다. 용기있는 대변인으로서 그녀의 정체성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바였다. 그녀는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가지고 말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요시야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발견된 두루마리에 관심을 갖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했다. 훌다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훌다의 임무는 대부분의 다른 선지자들보다는 쉬운 것이었다. 그녀에게는 왕과 백성들을 비롯해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유다가 최근까지 행한 모든 악행으로 인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을 것이라고 선언했다(신명기 28장을 보라). 요시야의 개혁은 그 악행의 결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었다.

그러나 요시야의 개인적인 운명은 다르게 전개될 것이었다. 하나님께 대한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인해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의 신실함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이 불타고 왕권이 박탈당하고 생존자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참담한 광경을 그가 사는 날 동안에 보지 않을 것이다.

34:29-33 훌다가 전한 말씀은 삶을 변화시켰다. 요시야는 훌다의 토라 해석을 따라서 유다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켰다. 말씀을 충실히 따랐던 요시야의 모범된 삶은 그가 사는 날 동안 백성에게 갈 길을 제시해 주었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다음의 질문을 칠판에 써놓고 학생들이 도착하면 읽을 수 있도록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우리는 듣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지 학생들에게 물어본다.
2. 이번 과에서는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라는 학습목표를 학생들에게 말해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신앙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확실히 말한다.

학습 인도

3. 학습용 공과에 있는 “성격분석” 도표를 짧게 언급한다. 본과가 전체 수업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토론한다. 인도자용 지침서에 있는 배경이해의 내용을 요약한다. 역대하 34:1-18의 내용을 요약한다. 역대하 34:19-31을 큰 소리로 읽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읽게 한다.
4. 19-21절에 대해 말하고 아래의 질문을 물어 본다:
 - *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잃어버렸던 책을 발견했는가?
 - * 하나님의 책이 읽혀질 때에 왜 요시아는 그토록 화가 났는가?
 - *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빠진 부분이 있게 되면 어떤 위험이 있는가?
5. 22-25을 읽는다. 학습용 공과에 있는 “성경속의 여선지자들”을 읽게 한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강조한다.
6. 아래의 질문에 답하도록 한다.
 - 홀다는 어떻게 성전 관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가?
 - 누가 오늘날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해주고 우리를 인도해주는 말씀을 주시는가?(야고보 1:5)
 - 당신의 삶에 영적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중에 여성은 몇 명이나 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사용하셨는가?
7. 26-31을 읽은 후 역대하 35장 20-25절에 나오는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 간단히 요약한다. 학생들

출애굽 이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 공부: 인도자 지침서

은 위의 두 본문을 묵상하고 다음의 질문에 답한다.

* 홀다의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며 또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 요시아의 죽음은 얼마나 평화로웠는가?

적용 격려

8. 탐구질문을 다시 읽는다. 아래의 문장을 칠판이나 포스터에 적고 학생들이 밑줄친 부분에 들어갈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도록 한다.

● 나는 _____ 에게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9. 홀다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간단히 말해준다. 학습용 공과에 있는 “오늘날의 삶을 위하여”를 요약하여 말해준다. 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보내신 사자를 영접하는 방법을 학습용 공과에 짧게 써본다. 기도로 수업을 마친다.

| | |
|---|---|
| <p>[제 12 과]</p> | <p>예레미야: 절망의 수렁에서 믿음을 지키다</p> |
| <p>핵심본문 예레미야 20:7-18; 26:1-15</p> <p>배경 예레미야 1:1-10;20:7-18; 26:1-19;37:1-38:28</p> | <p>학습주제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절망의 수렁에 빠졌지만 예레미야는 용감하게 믿음을 지켰다.</p> <p>탐구질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어려운 사명은 무엇이며 당신은 이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p> <p>학습목표 예레미야의 경험을 통해 도전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기</p> |

성경주해

배경이해

두 개의 본문은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의 배경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이 두 개의 사건들은 예레미야의 사역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1) 예레미야 1:1-10은 예레미야가 자발적으로 사역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사역을 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B.C 630년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되도록 그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반항했다. 당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기 따르기에 너무 힘든 시기였다.

국내적으로 유다는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었고 이러한 부를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랑하곤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이켜야 한다고 사람들을 설득한다면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출애굽 이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 공부: 인도자 지침서

대외적으로는 위협적인 야만인 스키티아인들이 근동지방을 침략하고 있었다. 유다는 바야흐로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될 수도 있는 이 침략자들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기꺼이 유다의 임박한 운명에 대해 경고하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의 부르심을 거부했다. 그는 하나님께 , 싫습니다! 하고 말하고 싶었다. 그의 변명은 이런 중차대한 임무를 맡기에 자신은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으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예레미야 1:6).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실 것이며 당신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예레미야 1:7-8).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결코 그를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또한 그에게서 고집 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나올 것이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빠져 나올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 목표가 “ 나라를 위한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2) 예레미야 37: 1-38:28은 예레미야가 비참하게 거부당했음을 보여준다.

예레미야의 경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언제나 냉담한 것이었다. 그는 신실하게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말씀에 대한 계속되는 반항은 그를 낙담에 빠트렸다.

아마도 예레미야에게 가장 절망적이었던-문자적으로-순간은 정말 열정적으로 강력한 말씀을 전했는데 마치 차가운 우물에 던져진 것과 같은 자신을 발견했을 때일 것이다!!

사람들은 그가 말씀을 전한 동기에 의구심을 품었고 그의 애국심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그는 잡혀서 감옥에 갇혔다(37:1-15).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레미야는 진실을 고집했지만 왕은 여전히 그것을 싫어했다(37:16-21). 다음은, 왕자들이 그를 반역죄로 고소하고 천천히 굶어죽도록 진흙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38:1-6). 오직 한 동정심 많은 외국인이 그의 생명을 구해주었다(38:7-28)

우리는 절망과, 거절과 죽음의 위협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깊은 좌절에 빠트렸을지 알 수 있다. 예레미야의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은 어떤 때는 거의 위로가 되지 못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본문해석

친악의 절망적인 고백(20:7-18)

아픔을 담고 있는 본문은 예레미야의 고백으로 불리는 5개의 통곡의 기도들 중 하나이다(11:18-12:6;—15:10-21; 17:14-18; 18:18-23을 보라). 라틴어 단어인 *confessus*는 동의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백(*confession*)이라는 단어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죄와 사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동의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 대신, 선지자는 하나님께 깊은 절망의 감정을 솔직히 토로하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간구했다.

20: 7-8. 예레미야는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망설였다.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 그는 감히 다음과 같이 바꾸어 표현할 수 있는 불평으로 가득 찬 기도를 드렸다.

[인용문]

하나님, 저를 이 혼돈 가운데로 처음 몰아넣으신 분은 바로 당신 이셨습니다! 저 자신의 판단과는 반대로, 비록 저를 부르신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당신의 강요를 따라서 선지자로서 당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몰아넣으신 이 미치광이 같은 상황을 보십시오. 제가 전하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이 저를 바보취급 합니다.

20:9. 예레미야는 아직 설교하는 일을 그만 두지는 않았다 . 확실히 그는 그만 두려고 했다! 하지만 도망치려고 할 때마다 그는 내면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잠재울 수 없었다. 그의 타오르는 가슴은 백성들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침묵하도록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20:10 예레미야는 고독과 위협을 느꼈다. 그는 철저하게 혼자였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열왕기상 19:14절의 엘리야의 절망과 비교해 보라). 그의 “가까운 친구들”은 그를 대항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는 공식적인 사역에서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고 게다가 개인적으로 그는 정신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다 (예레미야 12:6을 보라).

20:11-13. 주석가들은 예레미야의 애가는 자기 자신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한다(특히 15:15-18). 나, 나 자신, 그리고 나의 라는 단어들은 예레미야의 세 가지 주요 관심사 였다. 그는 자신과 그가 처한 상황을 중심으로 생각했다. 어려운 시기에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전형적인 구약의 시편의 애가들에서 저자는 고난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에 대한 신뢰를 재발견 한다. 고통스러운 상황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의 고백은 그에게 세상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제자도에서 행하는 매일 기도를 생각해보라.“ 하나님, 오늘도 당신과 제가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출애굽 이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 공부: 인도자 지침서

20:14-18 고난중에있던 읍처럼(읍기 3:1-26), 예레미야도 자신의 육적인 상황을 저주했다. 이런 애가는 구약시대에 절망을 표출하는 전형적인 표현이었다.

용감한 설교와 그 결과(26:1-15)

26:1-3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솔로몬의 성전 뜰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다(예레미야 7:1-15과 비교해보라). 하나님은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무시한 백성들을 주의를 끌기 원하셨다.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선택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다(18:5-11을 보라).

26:4-6. 성전에서의 말씀은 엄중한 경고였다.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은 실로처럼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다. 실로에는 북 왕국의 중요한 성전이 있던 곳이었지만 B.C 722년 앗수르의 침공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한 세기동안, 유다 사람들은 실로의 멸망을 북 왕국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겼다. 이웃의 눈에서 티끌을 발견했던 그들이 자신들의 큰 결점은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26:7-9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예상대로 그들은 자신들을 죄를 범한 북쪽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진리를 전하기보다 대중적인 입맛에 맞는 말을 전했던 가짜 선지자들인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은 역사에 대한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선지자 미가의 시대로부터 사람들은 성전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것이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실 것이라고 완고하게 합리화했다. 미가서 3:9-12에 나오는 예루살렘이 신성불가침이라는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 경고하는 미가의 말을 읽어보라.

이 세 우리들- 성전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좋아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듣고 불쾌했던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

26:10-15. 예레미야의 재판과 변호 과정에서 네 번째 우리- 왕궁의 왕자들, 즉 “ 유다의 방백들”(렘 26:10)이 등장했다. 풍습대로 그들은 먼저 예레미야의 반역죄에 대한 원고의 고소를 들었다. 침착하게,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죄 없는 한 사람을 죽게 할지를 결정하라고 했다.

26:16-24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은 진리를 보고 말하려고 애썼다. 이전의 선지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예레미야는 남겨진 사람이었다. 우리가 배우려고만 한다면 역사는 우리에게 훌륭한 교사다. “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26:7)의 편에서 왕자들(방백들, 26:16)의 편으로 넘어간 것과 같은 세상 종교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보라. 슬프게도 , 그 왕자들(방백들)도 이후에는 대중의 요구에 굴복했다(38:4)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학생들이 도착하면 칠판에 적힌 다음과 같은 문구에 주목하도록 한다. “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이야. 내가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거야?” 학생들에게 이 문장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라고 한 후 (그들이 아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거나 느낄 것 같은 상황에 있다는 가정하에) 대답을 유도한다.
2. 학습목표를 알려주고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생애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오늘을 사는 성도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있는지를 이번 학습을 통해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해준다. 학생 중 한 명이 탐구질문을 읽고 대표기도를 한다.

학습 인도

3. 학습용 공과 “예레미야의 소명과 배경(1;1-10)”과 인도자용 지침서 “배경이해”이용해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간략히 설명한다. 학습용 공과에 있는 “성격분석”도표를 이용해 예레미야의 선지자로서의 사역 시기를 요약 설명한다. 본과가 얼마나 전체적인 학습 주안점을 충실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토론한다. 토론 후 예레미야 20:7-18을 큰 소리로 읽는다(또는 한 사람을 시켜 크게 읽게 한다).
4. 이해를 돕기위해 학습용 공과에 있는 “ 단어 연구”를 인용해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한다.
당신은 예레미야가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는가? 잘못된 행동이었던가? 하나님께 당신의 바뀐 삶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가? 그렇다면 예레미야와 같은 식으로 말할 것인가?
오늘을 사는 성도로서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절망에 대해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말씀드려야 하는가?
5. 예레미야의 탄식과 그 후에 이어지는 20:11-13절에 나오는 하나님께대한 그의 찬양에대해 잠깐 설명한다. 두 구절들이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음을 말한 후 예레미야의 말에 내포된 감정의 극심한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토론한다.
6. 예레미야 26:1-11을 읽는다. 학습용 공과에 나오는 같은 구절과 인도자용 지침서에 있는 “성경주해”를 이용해 본문을 설명한다. 예레미야 26장의 성전에서 한 설교의 보다 더 긴 설교가

출애굽 이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 공부: 인도자 지침서

예레미야 7장에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다음의 질문에 답하도록 한다.

예레미야는 또 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예레미야 20장과 비교해 볼 때 그의 행동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당신이 어떤 일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해 저항해야 할 입장이 되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대에 대응하겠는가?

7. 예레미야 26:12-15절을 읽는다. 예레미야의 행동을 보고 생각나는 단어들을 말해보라고 한다. 그의 변화된 관점이 그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 시켰는지를 설명해 준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적용격려

8. 학습용 공과에 나오는 “절망에 대처하는 방법”을 언급한다. 글에 나오는 절망에 대처하기 위한 제안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학생들이 발견한 다른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지 말해 보라고 한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학생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위기에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학습용 공과에 그 방법을 한 문장으로 써보라고 한다. 기도로 수업을 마친다.

| | |
|---|---|
| <p>[제 13 과]</p> | <p>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께 무한한 충성을 바치다.</p> |
| <p>핵심본문 다니엘 3</p> <p>배경 다니엘 1-3</p> | <p>학습주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다짐했다.</p> <p>탐구질문 어느 정도의 박해가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가장 잘 드러내는가?</p> <p>학습목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나의 헌신은 어느 정도인지 깊이 생각 해 본다.</p> |

성경주해

배경이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유다는 세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북쪽에 있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다. 세 번의 침공을 통해 바벨론 군대는 유다로 진격해 들어갔으며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이전부터 그들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주전 605년 바벨론 사람들은 몇몇 유다의 인재들을 빼앗아갔다. 그 첫 번째 포로중에는 본 과에 나오는 젊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있었다. (다니엘 1:1)

그 후 주전 597년, 유다를 완전히 파괴해 버리기 위해 바벨론 사람들은 더 많은 지도자들을 끌고갔다(이것은 오늘날의 전쟁에서 장교가 사병들에게서 분리되어 전쟁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바벨론의 왕이자 유다의 정복자인 느부갓네살은 또한 성전에서 금으로 된 아름다운 기물들도 가져갔다(역대하 24:10-17). 에스겔 선지자도 이 때 끌려갔던 지도자들중 하나였다.

출애굽 이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 공부: 인도자 지침서

그는 5년 후에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에스겔 1:2-3).

마지막으로 주전 587년에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솔로몬 성전은 불에 타서 초토화 되었다(역대하 25장). 생존자들은 앞의 사람들처럼 머나 먼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605년에 포로로 잡혀갔던지 597년이나 587년에 잡혀갔던지 이스라엘인들은 시련을 당했고 그 시련은 한계에 달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시련을 견뎌내지 못했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은 깨어졌고, 낯선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으며, 야훼를 섬기는 신앙을 다시 회복하지 못했다. 급기야 그들은 힘이 정의다 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고, 그렇다면 이방신들도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고 그들이 진짜 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사야 46: 1-13절은 포로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을 상기시키며 앞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 44:9-20절은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의 우상숭배행태를 신랄하게 비꼬고 있다.

어떤 강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있는 동안 다른 신들을 섬기는 데 동참하지 않았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켰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지키는데 따르는 혹독한 댓가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시기의 정점에서 일어났던 6개의 이야기들로 시작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들어있는 다니엘서의 마지막부분은 아마도 박해가 극에 달했던 셀레우코스 왕조의 폭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치하에서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167-164 주전). 그러나 앞 부분의 여섯 장은 6세기 초에서 7세기 후반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기록되었다. 신실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다니엘 1-6)는 이 후 수세기에 걸쳐서 비슷한 박해에 시달렸던 유대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이 용감한 젊은 영웅들에 대한 6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대대로 기억되고 전해졌다.

억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에게 대한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 날까지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는다.

본문해석

이방 바벨론에서의 네명의 유대인 소년들(1:1-2:49)

유대인 포로들 중 가장 유능한 인재들은 왕궁에서 행하는 훈련을 통해 선발되었다(다니엘 1:3-5).

출애굽 이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 공부: 인도자 지침서

모든 고대 근동지방의 왕국을 통틀어서 현명하고 재능있는 인재들은 왕의 보좌관으로 일하는 것이 관례였다. 현명한 보좌관들의 꿈과 해몽은 당시에는 진리를 이해하는 척도요 기준이었다(2:1-3과 25-28을 보라).

낮선 문화에서 최악의 제안을 받은 이 네 명의 소년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다. 다니엘은 즉시 네 명의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대안을 제시했다(1:8-16). 그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지키기로 결단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실함에 대해 하나님의 지혜와 복으로 응답하셨다(1:17-21; 또한 2:12-49을 보라).

왕의 명령(3:1-7)

바벨론 왕은 그의 왕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대한 금 신상에게 절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것은 십계명을 지키는 이 신실한 유대인들의 눈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았다.

다니엘 2:46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깊은 인상을 받았고 다니엘과 그의 하나님께 절을 했다. 이제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기를 기대했다. 왕의 권력은 최고조에 달했고 그의 교만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의 권세와 위협에 압도당한 사람들은 그를 따르게 되었다.

젊은 유대인들에대한 참조 (3:8-12)

어떤 바벨론 사람들은 세 명의 신실한 히브리인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아마도 왕의 눈에 들 수 있는 기회를 찾았을 것이고, 이 토박이 신하들은 세명의 젊은이들을 맹렬하게 참조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바벨론식 이름이 주어지긴 했지만 그들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히브리 이름으로 바벨론 땅에 도착했다(1:7). 그들은 위선자라는 의심을 받았으며 명백한 대역죄인으로 기소되었다. 그들은 왕이 명한 대로 사형에 처해져야만 했다.

왕 vs 하나님(3:13-23)

본문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와 주 하나님, 그리고 애굽왕 바로와 그의 신들의 대면을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다(출애굽기 7-11). 하나님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저버리지 않으셨고, 이 세 명의 젊은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

분명히,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에 대한 시련이었다. 어느 누구도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비록 왕을 돕고 있었지만(다니엘 2:49),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 젊은이들은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꽃(시련)을 모면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 하지만 살아남는 것은 그들에게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하박국 3:17-19절을 보라).

3:19-23 이 시점에서, 느부갓네살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래서 풀무의 온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집어삼킬 정도로 높여졌다(다니엘 3:22). 세 명의 히브리 청년들은 예복을 입은 채로 풀무에 던져질 때까지도 침착함과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그 광경은 드라마의 한 장면과도 같았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왕의 고백(3:24-30)

3:24-30.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왕은 불 가운데서 네 사람의 형체를 보았다! 세 명의 젊은이들은 불에 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 왕은 네 번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 “ 신들의 아들과 같다”는 그의 말은 고대에는 천상으로부터 온 존재, 사자 또는 천사를 이르는 말이었다. 이방인의 눈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음을 말할 수 있다!

3:26-30.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사건은 왕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음”(3:27)을 목격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 사자를 보내사 하나님을 신뢰한 종들을 구원하셨으므로”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했다(3:28). 이 세 히브리인들의 행동은 그들이 비록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기는 했지만 왕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느부갓네살은 “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놀라운 명령을 내렸다 (3:29). 이방신 섬기기를 강요했던 그의 노력은 이제는 정 반대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가장 합리적인 반응은 위기 가운데도 계시고 또 그 너머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뿐 이다. 왕에의해 처형당하는 대신 이 세명의 젊은이들은 오히려 승진하게 되었다(3:30).

세상 권세에 대한 약한 자들의 충성된 증거는 큰 영향을 미쳤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신다. 성경 전반을 통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보답해 주신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을 막을 수 없다. 첫 번째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우리는 금요일 오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예수님에게 주일아침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다. (빌립보서 2:8-9을 보라).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학습용 공과에 나오는 탐구질문“어느 정도의 박해가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가장 잘 드러내는가?”에 대해 말한다. 오늘날도 전 세계에서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과 우리 또한 때로는 신앙에 도전이 되는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본 과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결과가 어떤가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해 준다.

학습인도

2. 본과의 교훈을 학습용 공과에 있는 “성격분석”도표를 이용해 설명한다. 인도자용 지침서에 있는 “배경이해”의 내용을 요약해 설명한다.

3. 한 사람에게 다니엘 3:1-7을 읽게 한다. 학습용 공과의 내용과 인도자용 지침서의 “성경주해”를 사용해 본문의 상황을 설명한다.

4. 다니엘 3:8-12을 읽는다(또는 다른 사람이 읽게 한다). 학습용 공과에 있는 “단어연구”를 요약해서 설명한다. 아래의 질문에 답하도록 한다.

당신은 왜 점성술사들이 세 젊은이들을 고소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행위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반응 할 것인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따르면 어떤 해를 당하게 될 것인가?

출애굽 이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 공부: 인도자 지침서

5. 다니엘 3:13-18을 읽는다. 아래의 질문에 답하도록 한다.

당신이나 또는 주변 사람 중에 본문의 경우와 같은 신앙의 위기에 직면했던 사람이 있는가?

이 세 젊은이들의 행위를 보고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세상과 타협을 한다면 당신의 신앙생활과 증인으로서의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는 느부갓네살의 말은 왜 중요한가?(3:29)

적용격려

7. 본 과의 내용을 요약한 후 탐구질문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키도록 학생들을 격려하고 그들로 하여금 본 과에서 배운 바를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한다. 탐구질문을 사용하여 본 과를 다음 학습 내용인 에스더와 연결 지어서 설명한다.

8. 학습용 공과에 있는 “오늘의 삶을 위하여”를 요약해서 설명해 준다.

9. 수업을 마치기 전에 학생들이 짝을 지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한다.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한다.

| | |
|--|---|
| [제 14과] | 최후의 모험 |
|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에스더 4장1절-16절</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에스더 1장-8장</p> | <p>학습주제 불투명한 결과를 알고도 에스더의 생명을 건 모험은 그녀의 민족을 죽음에서 구해낸다.</p> <p>탐구질문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가?</p> <p>학습목표 에스더의 이야기를 총 정리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려해 본다.</p> |

성경주해

배경이해

유대인의 바벨론의 포로생활은 페르시아 대왕인 키루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곳에 포로들을 자유롭게 함으로서 끝났다. 키루스는 제국을 세울 다른 정책들을 도용했고 기원전 538년에 유명한 키루스의 칙령을 발령했다. 키루스는 유대인이나 점령된 다른 민족들을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들의 삶을 다시 세울 것을 허락을 했다-그러나 그것은 페르시아 왕의 감시의 눈과 철저한 세금을 걷는 조건이 따랐다.

몇 년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의 군주인 아하수에로(Xsrxes 485-464B.C.)왕은 그의 수하에 있는 유대인에 대하여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 부림 축제(Feast of Purim)는 그의 결정과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하여 구약에서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년 중 축제가 되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아달월 곧 2월과 3월 14일과 15일에 이런 좋은 기억을 가지고 축제를 연다.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드라마틱한 이야기와 유대인에 대한 그의 정책적인 결정들과 연관이 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에스더 책 전체를 통해서

출애굽 이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 공부: 인도자 지침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 드라마는 에스더와 그녀의 삼촌인 모르드개의 평범한 삶 속에서 갑자기 수산성에 있는 왕의 내부로 등용이 됨으로써 연관을 맺게 된다. 모르드개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에 포로가 이송이 될 때에 같이 오게 된다. 그리고 홀로된 에스더를 입양한다. 이방의 땅에서 헌신적인 유대인으로 자란 모르드개는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충성스럽고 강한 인물로 등장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사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목도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여 그의 민족들을 구출해 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본문 해석

자주 변하는 역사인 하나님의 섭리(1:1-2:23)

술과 권력에 취한 아하수에로 왕은 그의 통치와 왕비인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려고 거대한 연회에 나타나라고 명령한다(1:10-11). 왕비가 단호하게 거절을 하자 왕은 창피하고 화가 난 나머지 페르시아의 문화 안에서 권력을 사용한다(1:16-18). 그래서 왕은 왕비를 폐위하고 다른 왕비를 찾는다(1:19-2:4). 이런 큰 탐색 가운데 아름다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로 등극하게 한다(2:5-18)

하나님은 비속한 인간의 역사를 넘어서 유대인을 대신해 일하실 수가 있으시다. 이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능력의 주제이다. 누가 이것을 가졌으며? 누가 이것을 가지지 못했는가? 누가 잃어버렸으며, 누가 이것을 얻었는가? 하나님 자신의 능력은 인간의 사건들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두운 음모들로 가득찬 세속의 역사 속에서(2장13절에서 23절을 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길들을 계속해서 찾는다.

대량학살의 표적(3:1-15)

3:1-6. 에스더의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던 모르드개는 정치적인 음모에 빠진다. 하만은 순종을 요구하지만 모르드개는 (13과에 나오는 세 명의 영웅처럼) 절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의 유대인으로서 충성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다.

3:7-15. 하만은 재빠르게 그의 정치적인 상황들을 정령해 가고,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왕의 칙령을 견고히 해 나간다(다니엘 3:8-12을 비교해 보라). 왕으로부터 대리 권한을 받은 하만은 대량학살을 행동으로 옮긴다.

그렇지만 왕은 그의 사랑하는 왕비인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고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2:10,20). 그녀의 종교적인 정체가 드러났을 때에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를 거부할 것인가? 하만의 수사망은 왕의 궁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서 왕비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

믿음의 용기(4:1-17)

4:1-3. 이런 하만의 악한 계획과 왕의 무조건적인 명령이 모르드개에게는 파괴하는 광풍과도 같았다. 그의 상실과 괴로움은 고전적인 동방의 표현 속에 드러난다. 관복대신에 베옷, 재는 죽음과 죽을 운명의 싸인, 금식은 자기 부인을 위한 행동과 하나님에게 탄원을, 흐느낌과 울부짖음은 내면의 가장 깊은 아픔의 표현들이다. 이런 소식이 온 제국에 전해지자 유대인들은 셈족에 대한 반감 때문에 슬픈 애가를 부른다. 이번은 페르시아인의 손 안에 든 것이다.

4:4-8. 모르드개의 슬픔을 접한 에스더는 혼란스러웠지만 그녀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위로했다. 에스더에게 답을 보낸 모르드개는 유대인을 향한 하만의 절박한 위협의 모든 증거를 설명했다. 더욱이 모르드개는 에스더가 왕에게로 가서, 그녀의 민족들을 중보하고, 위험한 정책을 취소해야 한다고 애원했다. 전에는 그녀의 유대인의 정체를 숨기라고 했지만(2:10,20), 지금은 그것을 그녀의 민족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지시한다.

4:9-11. 에스더는 그녀를 입양한 모르드개에게 언제나 순종했다. 이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그녀는 그의 지시에 현실의 상황을 제시했다. 왕은 자신의 영역을 완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의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통제를 해야 했다, 즉 누가 들어왔으며, 누가 나갔으며, 무슨 스케줄이며, 무슨 일들인가에 대한 것들이다. 에스더가 배운 것은 국사를 논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갈 때에 사전의 유행어가 없이 스스로 나갔다가는 어김없이 죽임을 당했다. 사실 같은 왕은 벌써 왕비를 그렇게 되출시켰다.

여기서 왕의 배우자와 집 안에서 나누는 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국사를 논하는 멤버들 외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의 방해로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두 남자의 기대에 모두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깊이 갈등을 하지만 결국 결정을 하게 된다.

4:12-14. 모르드개는 그녀가 위험에 처해질 것에 대하여 당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 그래서 그는 대량학살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에스더 자신에게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도전하고 있다. 에스더는 이 정책에 대해서 자신도 피해갈 수 없음을 알게 된다. 그녀는 용감하게 중간에 나서서 이 학살을 저지해야 했다. 에스더는 궁 안에서 왕에 대한 하만의 치명적인 영향을 맞받아 칠 수 있는 유대인으로서 유일한 자리에 있었다. 아마도 그녀가 궁 안에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온 것은 유대인을

지금과 같은 위기에서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사건의 중심에서 일하시고 계신다; 이제는 에스더 자신이 이 일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다.

물론 모르드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지 않았다. 그러나 14절의 그의 말은 하나님에 대한 말에 가깝다. 충성스런 유대인인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입 밖으로 말하지 않고도 인간사에서 선과 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있었다. 고대유대에는 정권의 학대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모호한 언어들과 상징적인 은유들을 통해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했다.

4:15-16. 에스더는 그녀의 민족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겠다는 용기있는 헌신으로 행동에 옮겼다. 그녀는 왕의 법을 어기는 것이 자신을 어떤 위험에 놓이게 할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유대민족을 구해내기 위한 그녀의 책임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겸손하게 깨달은 가운데 에스더는 모르드개와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자신과 함께 금식기도로 나갈 것을 부탁했다.

4:17. 모르드개는 충성스런 유대인과 왕비로 키운 에스더를 도왔다. 그리고 “에스더가 시키는대로 무엇이든 했다.” 그들의 역할은 다르지 않았고,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성인이 되었다.

에스더는 용감하게 유대인을 대신하여 이끌어 나갔고(5:1), 왕의 윤허를 받아냈고(5:2-8), 하만의 사악한 간계를 이겨냈다(7:1-8).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하만의 멸망과 유대인의 회복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하만과 유대인의 운명은 역전되었고, 유대인들은 큰 승리 속에서 첫 번째 부림축제를 즐겼다 (9:1-32)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당신이 이것을 읽고 보여줄 때에 각각의 상황 개인적인 확신과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도록 한다:

-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어 수양부모로 부터 양육을 받음
- 남자들이 지배하는 사회 안에서 여자일 때
- 십대의 나이에 입양가족으로부터 분가해서 많은 가족들이 함께 사는 곳으로 옮겨졌지만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일 때
- 아직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사람과 강제적으로 성관계에 들어갔을 때
- 당신이 다른 인종의 배경을 가졌다고 해서 증오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가해올 때
- 당신에게 선택권이 없이 다른 종교와 문화를 가진 이방인과 결혼을 강요당하고 그로인한 많은 갈등으로 살 때
-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강요당하지만 그것이 생명과 연관이 있을 때

2. 이와같은 상황들이 에스더가 만난 상황들과 비슷하다는 것을 인지한다. 그녀가 만난 상황들이 그녀로 하여금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됐는지 토론하라

학습 인도

3. 학습 가이드를 참고로 사용하고 에스더 책에 처음 세과의 나오는 주요 사건들을 요약하라. 반원 중에 몇 명을 초대하여 자신들의 손을 떠난 어려웠던 상황들 속에서 힘이 없고 두려웠을 때를 나누도록 인도 하라.

4. 에스더 4:1-14을 읽으라. 모르드개가 민족의 어려움을 가지고 왔을 때에 처음에 에스더가 선뜻 나서지 못한 이유들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라. 그녀의 달라진 상황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나누라. 만약에 에스더에게 문화적인 금지사항이 없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허락이 되었다면, 모르드개의 요구에 대하여 어떻게 틀리게 대답을 했겠는가?

5. 4:15-16을 읽으시오. 참여한 사람들에게 11절에 나와 있는 에스더의 태도와 16절에 나오는 에스더의 마음의 변화의 차이를 나누도록 한다. 왜 에스더는 자신을 위험한 처지에 놓이도록 경정을

했는가? 왜 이런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암시가 되었는가?

6. 에스더가 민족전체의 금식을 부탁한 것을 나누라. 이런 행동이 에스더가 약해지고 하나님께서 젊은 여자의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으실 거라는 불신 때문에 그랬는가? 반원들에게 다른 방향으로 대답하도록 인도하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 하게하는 기도에 대하여 나누어 보라.

적용 격려

7.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도 유대인 대학살 생존자들은 나치(독일)의 학대 속에서 자신들의 안전과 자유와 목숨을 걸고 구해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 놓았다. 이런 평가들은 악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워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 독인 나치 안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이웃들과 친구들을 위해 위험을 감수했지만 어떤 목사들과 모임들은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량 살인을 무시한 것 같다. 반원들에게 무슨 이유들이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만드는지 아니면 그들의 문제에 등을 돌리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라.

8. 반원들에게 어떤 경우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가 어려운지 나누도록 하라. 그리고 에스더나 현대의 영웅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희생한 것들이 믿는 자들의 행동과 자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토론하라. 반원들에게 오는 주중에는 자신들의 마음을 검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이기심 없이 도와주도록 도전한다.

| | |
|---|--|
| [제15과] | 사람들을 위해 일어서다 |
|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느헤미야 2장1절-5절;5장:1 절-13절</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느헤미야1장-5장</p> | <p>학습주제 느헤미야는 그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축하는 것과 정의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외치는 이기적이지 않는 열려를 나타냈다.</p> <p>탐구질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p> <p>학습목표 느헤미야가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를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시는지 분별하라</p> |

성경주해

배경이해

538B.C. 키루스 칙령에 따라 지금은 우리가 ‘회복’이라고 부르는 유다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운동이 일어난다. 귀환하는 이야기가 에스라의 책에서 하나하나 열거되기 시작한다. 키루스 대왕은 회복에 크게 공헌을 한다. 그는 솔론몬의 성전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했던 금 그릇들을 처음으로 유다로 귀환하는 유대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낸다(에스라1:5-11)

여러 그룹의 유대인들이 여러 세대를 거쳐서 돌아오고, 각각의 세대가 돌아올 때마다 유대인들이 다시 한 곳에 모이게 되고 재건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바벨론에 남겨진 사람들 사이에서 소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의 어려움은 그들을 가로 막았고, 재건을 늦추게 만들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출애굽 이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 공부: 인도자 지침서

포로로 있는 동안 유다의 땅에 거주하고 있던 거주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들을 괴롭혔다.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役事)가 중단이 된 것이다.

그래서 520 BC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불러서 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됨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도전을 받아들인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역사로 돌아왔고(에스라5:1-2), 기원전 516년에 성전은 완성된다.

예루살렘은 페르시아의 총독이자, 다윗 왕조의 계열인 스킨바벨의 지도를 받았다. 한편 예수아는 솔로몬의 성전에서 깨어진 기구들을 깨끗하게 치우고 제단을 회복했으며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았다(에스라2-3)

나중에 아닥사스왕은 458 BC에 유다로 다시 돌아온 다른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서기관인 에스라를 보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돌아와 회복된 유다 백성의 삶의 중심에 모세의 율법을 세웠다(에스라 7:1-26; 느헤미야 8:1-12).

페르시아에서는 느헤미야라는 유대인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 관원으로 섬겼다. 그는 재건의 노력이 방해받는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의 가장 큰 근심은 아직도 쓰러져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에 있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12년을 봉사하며 성벽 재건을 시작한다.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와 왕의 조언을 구한 후에 다시 유다로 돌아 와서 두 번째로 섬긴다 (느헤미야 13:6-7).

본문 해석

고향의 위기(1:1-11)

유다로부터 온 메신저들은 페르시아 안에 있는 느헤미야를 기원전 445년, 11월과 12월에 방문하여(느1:1) 예루살렘의 형편을 설명하였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황폐함 특히 성의 외벽과 성문들의 사정을 듣고 마음이 찢어졌다. 슬픈 현실은 슬픈 반응을 일으켰다.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587 B.C.에 이 성벽들과 성문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태워버렸다. 에스라가 귀환하기 전,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오기 10년 전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의 거센 반대와 모략으로 아닥사스왕의 허가를 받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중단시켰던 것이다(에스라4:4-24).

느헤미야는 늘 하던 대로 깊은 영적인 삶 속에서 기도했다. 그는 과거의 죄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철저히 회개하며, 지금의 위기를 역사의 문맥에 집어넣었다. 느헤미야는 간구와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셔서 이런 위기에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했다.

두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행동하기(2:1-5)

2:1-2. 3월에서 4월 즈음에 슬픈 소식을 듣고 4개월이 지난 후(느헤미야1:1,2:1) 왕은 그의 친구 같이 생각하는 신하에게 깊은 근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아닥사스왕의 술 관원인 느헤미야는 왕과의 신뢰와 확신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

정권의 궁에서는 술 관원의 역할은 눈에 띄게 중요한 자리였다. 그는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를 책임졌다-상질을 선택하고, 바로 옆에서 섬기고, 혹시 암살자들이 독극물을 섞을 것을 염려하여 그것이 왕의 입술에 닿기 전에 먼저 맛을 보았다.

4개월이 지나는 동안 느헤미야는 멀리서 들려온 예루살렘의 슬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매일의 업무에 충실했다. 마음의 아픔이 얼굴로 나타났다. 몸의 언어는 강력한 언어였고 왕은 진실한 걱정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왕이 그의 측은함을 표현했을 때에 왜 느헤미야는 두려움으로 반응을 했는가?

2:3 느헤미야의 순간은 찾아 왔지만 그의 내적인 갈등은 여전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진심으로 원했다. 그러나 10년 동안 왕의 공식적인 정책은 무너진 벽이 그렇게 남겨져 있는 것이었고, 예루살렘이 성벽 없이 노출되어 있게 하는 것이었다(에스라4). 만약에 느헤미야가 왕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을 한다면 왕을 모욕하게 되고, 그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에스더의 비슷한 두려움을 기억하라-14과).

개인적인 안전보다는 예루살렘의 필요를 느낀 느헤미야는 그의 아픔을 털어 놓았다. 그러나 그는 지혜롭게 대답했다. 첫째, 그는 전형적인 왕에 대한 인사로 왕의 통치가 장수하기를 기원했다. 그리고 먼저 돌아가신 조상들의 묘지가 폐허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인간으로서, 후손으로서의 예루살렘 묘지에 대한 예우를 호소했다.

2:4-5 그에 대한 왕의 응답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내가 어떻게 도와 주어야 하겠느냐? 라고 섬세하게 되물었다. 느헤미야가 행동할 순간이 찾아 온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올바르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왕의 권한을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단순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모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왕의 허가와 축복이 필요한 것을 알았다.

건축 계획과 방해(2:6-4:23)

2:6-8 모든 것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움직였다. 느헤미야는 그의 중요한 직책을 떠나는 일을 허락했다. 그는 왕이 다스리는 제국의 땅들을 건너서 여행할 수 있는 허가 편지를 받았다(오늘날의 여행비자) 그리고 그는 재건에 사용될 나무들을 요구할 수 있는 왕의 칙서를 가지고 떠났다. 그는

출애굽 이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 공부: 인도자 지침서

자신을 위한 왕의 모든 힘을 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돕고 계심을 보았다.

2:9-3:32 계속되는 성벽 공사에 지역의 반대 세력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의지했다. 그러나 첫째는 어두운 밤에 먼저 성벽을 돌아보는 것으로 도전을 받았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일이며, 그의 지도에 자원하여 따르게 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성벽 주변을 따라 담을 쌓으며 구체적인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으로 일했다. 성전 보수는 진전을 보였다.

4:1-23. 다시 대적자들은 나타났다. 많은 빈정거림과 협박이 건축을 방해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애가의 기도를 드렸고 성벽은 높이 올라가며 진행됐다. 그러나 반대 세력은 이번에는 무력으로 공사의 진행을 중단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고, 일에 좀더 박차를 가했고, 그리고 일꾼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한 군사들을 세웠다. 그러나 육체적인 피곤함과 두려운 공격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느헤미야의 전략적인 지도력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일했고, 계획에 따라 계속해서 재건을 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5:1-13)

5:1-5. 유대인들이 그들이 사랑하는 예루살렘 재건을 열심히 했지만 그들의 경제적인 괴리가 깊은 분열을 가져 왔다. 느헤미야는 성공적으로 그들을 하나로 뭉쳤다. 그러나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됐고,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한 자들이 됐다. 이유는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을 이용하여 더욱 부자가 된 것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유다의 회복의 시기에, 기근과 흉년이 농경 경제를 심하게 흔들었다 (5:3, 말라기 3:11). 어떤 유대인들은 그들의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빚을 졌다. 그들은 그들의 농장을 저장을 잡혀서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페르시아에 세금을 바쳤다. 그들의 자녀들은 빚으로 인해 노예로 팔려가고, 빚을 준 사람에게 노동을 제공해야 했다. 그러나 더 깊은 문제가 나타났다: 빚을 준 자들은 바로 같은 유대인이었고 그들의 높은 이자는 가난한 자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었다.

5:6-13 느헤미야의 분노는 통찰력으로 변했다. 그는 조용하고 계속적으로 3세기 전에 이런 죄악을 향해서 적대하며 설교했던 아모스 선지자를 보고 강한 정신으로 무장을 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난 유대인들이 이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동료의 노예가 되는 것을 명확히 보았다. 그런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 사이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신명기 23:19-20).

느헤미야는 땅 주인들이 잘못 대하는 태도들을 방관하지 않고 정의를 보일 것을 외쳤다. 세상의 경제 원칙이 아무리 많은 이익을 남기게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경제의 도덕적 원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제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일에 모든 자원이 투자된다(마태복음 6:19-34, 행 2:43-47)

5:14-19 느헤미야는 그가 설교한대로 실천했다. 느헤미야는 개인적인 이익이나 총독으로서 특혜를 거절함으로 본이 되어 인도했다. 왕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느헤미야는 관원으로 받는 모든 특혜를 이용하고 정당화 할 수가 있었다. 그의 앞선 관원들은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재정적으로 숨기고,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간소한 생활을 했다. 그가 개인적인 농장을 돌보지 못한 것은 그의 모든 에너지가 성벽의 프로젝트에 쏟아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로부터 가족들을 잘 보양했고, 행정원들을 격려했고, 외부인들을 잘 대접했다. 그는 총독으로서 그에 맞는 봉급을 요구할 수가 있었지만 그것은 결국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알았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쏟아 붓는 인생을 살았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반원들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질문하라:

- * 소녀가 거리에서 길을 잃었을 때
- * 노인이 펍크가 난 차 옆에 서 있을 때
- * 소녀가 당신의 벨을 누르고 마실 물을 구했을 때
- * 임신한 침대 소녀가 당신의 벨을 누르고 전화를 사용하기를 원할 때
- * 주일학교의 반원 중에 직장을 잃어서, 직장을 구할 때까지 당신의 손님을 방을 쓰기를 원할 때에

2. 이런 상황들을 들었을 때에 어떤 요소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고려하도록 하라. 그들의 대답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정확히 받았을 때와 어떻게 틀려지는지 나누도록 한다. 이것이 당신이 더 돕도록 하는가? 아니면 그 상황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는가?

3. 오늘의 과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의 반응을 배우게 한다.

출애굽 이후 포로귀환기까지의 인물 공부: 인도자 지침서

학습 인도

4. 느헤미아가 만났던 문제들을 정리하라. 왜 유다의 상황이 그토록 느헤미아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나누라. 학습공과 와 인도자 지침서 안에 있는 본문해석의 내용을 사용하도록 하라.

5. 전과에서 어떻게 에스더가 그녀의 민족에게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지를 기억하라. 느헤미아의 금식기도와 에스더서의 민족 금식기도를 비교하도록 하라.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른가를 질문하라.

6. 느헤미야 2:1-5까지 읽으라. 질문하라,

- * 그가 왕에게 다가갔을 때와 에스더의 접근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 * 2절에 그의 두려움의 원천은 무엇인가?
- * 느헤미야는 그의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7. 느헤미아의 여행의 준비를 정리하고 그가 도착했을 때에 상황을 설명하라. 그 곳의 이웃되는 그룹들의 대적을 만나는"인도자 지침서"안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라(2:6-4:23). 질문: 왜 유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재건에 반대했는가? 느헤미야는 대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8. 느헤미야 5:1-13절을 읽어라. 학습공과 안에 있는 "의로운 반응(5:6-13)" 와 인도자 지침서 안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5:1-13)에 나오는 정보를 이용하여 상황을 설명하라. 곤경에 처한 가난한 사람들을 행한 고위층들의 무지했던 이유들의 무엇인가 토론하라. 질문: 왜 느헤미야는 유대인 커뮤니티 안에 존재하는 경제적인 핍박을 들었을 때에 바로 관여하게 되었나? 왜 이것이 그를 그토록 걱정하게 만들었나? 그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밟았나?

9. 느헤미야 5:14-19 절을 읽으라. 커뮤니티 안에서의 느헤미아의 의를 예로 삼으라. 질문, 느헤미아의 행동은 그 지역에 사는 귀족들과 관직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

적용 격려

10. 반원들에게 그들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라고 말하라. 참석자들에게 이 질문들을 돌아 보라고 인도하라. 나의 인생에 본들을 무엇인가? 나의 태도와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보이도록 영행을 주고 있는가? 느헤미아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듯이 어느 방면에서 내가 도움을 주라고 도전 하시는가?

11. 반원들에게 느헤미아의 성격에 장점들을 나누도록 하라. 질문 그의 기도가 의롭게 행동하는 선택

하도록 어떤 역할을 했는가?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결정과 행동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12. 반원들에게 그들의 기도의 생활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어느 부분에서 강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실 것을 간구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을 도와주는 그들의 태도가 성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격려하라. 침묵의 기도를 드리자.